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 편 공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와 함께라면 금연성공 6배 증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인 '도와줄게요'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연말연시 금연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흡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광고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에게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와 함께라면 금연성공률이 6배 증가'함을 알리고, 자신에게 맞는 금연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관할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고,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및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캠프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담 캠페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금연상담전화의 경우, 연말연시 금연결심으로 전화상담 수요로 상담사 연결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원하는 시간에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라면 누구 경험해봤을 금연 결심과 실패 경험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알려 금연 성공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광고는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담배다", "결혼도 했는데 끊어야지", "아기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등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는 여러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하여 현실감을 높인다.

광고 주인공인 가수 심태윤씨는 "실제로 예전에 금연을 결심하고 성공한 자신의 경험이 광고 내용과 비슷해 공감이 간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꼭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옥외광고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활용해,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이 금연을 바라는 진심을 전달한다.

옥외광고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하였으며, '아내, 직장 후배, 아이' 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흡연자를 걱정하며 금연 권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



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이번 연말연시에는 금연결심이 작심삼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흡연자들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새해에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대폭 확대 조성한다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녹색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국비 144억 원 등 총사업비 288억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과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기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 녹색 휴식공간, 도심 속 각종 소음의 감소,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정서함양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준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올해 포함 연일유강 철도유류지 등 6개 시·군, 10개소(13.5ha)에 127억 원(국비 64억 원)을 투입해 연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국비 95억 원)을 확보해 포함 포스코 철강단지 주변 등

11개 시·군, 15개소(19.0ha)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 1차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는 2019년부터 200억 원(22년 7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12월에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주는 2022년도에 10억 원(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의성 안계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내년에는 포함 동부초등학교 등 3개 시·군, 6개소에 12억 원(기금 6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시숲은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능과 탄소 흡수원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라며, "도시숲 조성사업 지속해서 추진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전남도, 코로나엄중...연말연시 이동·모임 자제하세요

전남도, 확산차단캠페인...김영록지사 '위기극복동참' 호소

전라남도는 13일 연말연시 이동 및 모임 자제를 호소하는 방역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 최근 도내 하루 확진자가 80명을 돌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했다.

캠페인은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 목포역을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의 변화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현장 캠페인으로 펼쳐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목포역에서 발표한 도민 호소문을 통해 "전남도는 2년간의 코로나 시국 중 가장 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낮아진 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인 백신접종과 함께 연말연시 이동 및 모임 자제, 타지역 가족 지인 간 접촉 최소화, 타지역 접촉 후 PCR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라 접촉자 2천225명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모든 해외입국자의 10일간 시설 격리, 오미크론 밀접접촉자의 경우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면서 매일 PCR 검사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위중증 환자 증가 및 타지역 환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기존 883개 병상에 추가로 430개 병상을 확보 중이며, 고령층을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정부로부터 추가 지정받았다.

또한 재택치료만으로 위험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모델을 새롭게 마련해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 추가 운영...821개 병상 확보

연번	시도	병원명	병상 수(예정)
1	서울	송파그랜드요양병원	180개
2	서울	성북참노인전문병원	114개
3	경기	신갈백세요양병원	96개
4	경기	하나에요양병원	150개
5	경기	센트럴요양병원	165개
6	인천	금강요양병원	116개
총 계			821개

정부가 이번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의 외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수도권 지역에 6개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향후 전국적인 확산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500여 중증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

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외상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에서 총 1199병상

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총 13개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 총 2020개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과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다보스·나은·대자인병원 등 3개를 추가 운영한다. 지난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에서 63병상의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 주에 인천 나은병원 24병상과 전북 대자인병원 138병

상을 추가로 개소함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로 시작해 21개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번 확충으로 거점전담병원 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나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방접종과 방역패스의 준수, 모임과 외출 자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환자실 등의 의료체계 역량은 여유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기술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가 핵심광물 공급망과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호주는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위해 10년간 5000만(약 421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문승욱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청정 수소경제 등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산업부,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공동 주최한 '한-호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호주와 상호호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한-호 정상회담 직후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

력 양해각서(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2건의 MOU도 교환했다.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는 우리나라와 호주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 청정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전주기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산학연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수소공급망,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저탄소철강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반에서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등 민간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호주 수소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청정수소 인증 등 제도, 수소발전·수송 분야 인프라 구축, 수소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명시해 양국의 수소경

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국은 양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실무그룹을 통해 양국 간 광물개발·생산 등 분야에서 공동 투자,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에 수행단으로 동행한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14일 시드니를 방문해 영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지배출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위해 10년간 50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국내 예산절차에 따라 상용하는 규모를 매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내년도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수소공급망·CCUS·저탄소철강 등 3개 분야를 지정했다.

최만식기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충북도, 영신퀴츠(주)와 4,200만불 투자협약 체결

반도체제조용 고순도 석영유리생산, 4년간 4,200만불 투자, 44명 신규고용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13일 10:30 도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영신퀴츠(주)와 반도체 생산 및 평판디스플레이, 광섬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순도 석영유리 제품 생산설비의 건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영신퀴츠(주)는 진천군 광혜면면 자가공장부지 내의 1,638㎡(496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4,200만불 규모의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충북도민 4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에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신퀴츠(주)는 세계적 석영유리 생산 그룹인 독일 Heraeus Quarzglas사와 일본 Shin-Etsu Quartz사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돼

설립한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품질의 석영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영신퀴츠(주)는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진천군에 1985년 2월 5일 진천군 2호 기업으로 설립돼 충북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북은 반도체 관련 기업, 생산액, 수출액 등에서 국내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이다"라며, "외국기업인 영신퀴츠(주)가 증설 투자를 계기로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 제조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이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 위촉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에서 양기대 의원에게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

최 지사는 양 의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 것을 높이 기리며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에 기여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강원도 명예도지사로서 강원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 등에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리필샵 등 '다시 채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해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 1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사용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판매하는 '다시 채움' 소비문화와 환경중심형 지역공동체경제를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필 샵', '제로웨이스트 샵'과 같은 다시 채움 가게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담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가 샴푸, 화장품, 세제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구입해도 팔려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정말 많다"면서 "이것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지구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과다한 포장 비용이 줄어드니 보다 값싸게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이 이제는 환경중심형 소비문화이자 공동체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거버넌스센터, 지역혁신·자치분권 강화 맞손

지방자치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업무협약... 공동연구·분권 강화 캠페인 등 협력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2.0 실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거버넌스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국제회관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역혁신과 자치분권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거버넌스 캠페인을 펼치는 거버넌스 연구·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혁신과 분권자치 강화, 거버넌스



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 캠페인 및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 혁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2021 평택항 항만물류포럼' 축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평택항 항만물류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2021 평택항 항만물류포럼」은 평택항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했다.

축사 자리에서 오명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해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항시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래없는 코로나19의 확산은 평택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만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평택항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명실

상부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평택항의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추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평택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평택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평택항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조혜영/기자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 취약한 영북지역(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의료인프라 획기적 개선

강원도의회 주대하 의원(속초 제1선거구)은 그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건강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영북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이 '강원도속초의료원'의 시설개선으로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속초시를 비롯하여 고성·인제·양양군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주대하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2019년 속초의료원 소아 전용 병동(10병상) 개원을 통해 영유아의 돌봄 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설악지역 유일의 분만산부인과 폐쇄에 대응한 강원도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분만시설 조성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출산 후 산모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속초의료원 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역사회의 호소에 따라 강원도청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협의·설득하여 2022년 당초예산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접근이 어려웠던 '호스피스

병동(21병상)', '인공신장실(14병상)'을 신설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시설로 요구되는 '응급실내 격리병상' 확충 등이 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강원도속초의료원이 명실상부 영북지역 대표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대하 의원은 '강원도속초의료원의 주요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그간 의료시설 부족으로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영북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영북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왔던 지난3년여의 의정활동이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2022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속초시를 비롯하여 영북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건설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전남도의회 최병용 도의원, 해양수산과학관 전남도민중 소지자 등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해양수산과학관의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양수산과학관의 대체 휴관일을 월요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 관람대상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외국사절단 등에 전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다자녀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도 포함하였다.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수조 18대의 전시수족관의 어류 60여종 1400여마리, 체험 및 보는 수조 25대, 갯벌수조 1대의 어패류 등 11종 12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그 밖의 67석의 3D 영상관을 갖추고 해양생물다오라마관, 산호 패류 화석 등 980종 4800여점이 전시되어 해양수산 문화의 전승 보전 및 청소년 산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용 도의원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여촌관광 벨트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기에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관이 명실공히 해양수산 문화체험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만/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2021 겨울방학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북어생태전시/물속 친구들의 생존전략/세계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터/모래놀이터/풍선결링/복불복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설 당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주최·주관 남원시 후원 산림청 문의: 063-620-5752~4

영등포구, 구정 운영 청년 파트너 '청년 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영등포구가 청년 세대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서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적·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공동체이다.

구는 지역 활동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선도적 정책 발굴·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성화에 힘써왔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온·오프라인 청년 공론장 '더나영 월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하며 교류하며 사회 이슈, 청년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내용은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위한 열린 공론장 운영 ▲청년 관련 교육·행사 참여 등이다.

올해 모집하는 네트워크 참가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영등포 청년 정책의 발전을 위해 활약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및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 ▲영등포구 소재 직장(자영업)에 다니는 청년 ▲영등포구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구는 청년활동 경력과 자기소개서, 성별·연령별·업무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 활동 우수 참여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개별 통보 예정이다.

채원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활약을 펼칠 열정과 패기 넘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인 구정 문화와 소통·공감행정을 기반으로 청년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강남구, 장애인 스마트 체험홈 '사랑·(in)···포변적 일상 누린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수서동 22미리강남세움센터(광평로60길 22) 5층에 중증장애인 스마트 체험홈 '사랑인(in)'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개소한다.

실생활 주거환경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체험홈 '사랑인(in)'은 장애인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를 접목한 가전, 주방가구를 직접 작동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구는 '일상복귀 지원형', '돌봄부담 경감형', '일상개선 지원형'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주거 편리를 위해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88개 제품을 설치해왔다. 해당 제품으로는 전동빨래 건조대, IoT조명장치, 아이콘택트용 컴퓨터, 전동침대, 높낮이 조절 책상이 있다. 스마트 체험홈에는 높낮이 조절 책상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설치됐다.

장애인뿐 아니라 강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남세움복지관에 전화(02-2184-8700)로 신청하면 된다.

배경숙 사회복지과장은 "주거공간은 우리 삶에 활력과 힘을 주는 중요한 공간인데, 장애인은 불편했던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거공간 변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서울시, 어르신도 모바일 홈페이지 편리하게...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 첫 적용

서울디지털재단, 전국 최초 개발 가이드라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적용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들도 쉽거나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발한 가이드라인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적용 완료했다.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은 서울디지털재단이 고령층의 편리한 디지털 접근성을 위해 '20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표준안이다. 스마트폰 앱, 모바일 웹, 영상 콘텐츠가 고령층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단은 지난 4개월 동안 (21.8~11)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이 높아졌고, 아이콘 밑에 설명을 달아 의

미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했다. 중요한 공지사항을 노출할 때 좌우에 추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부 영역을 노출하는 등 어르신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디지털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홈페이지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표준안이 적용된 홈페이지에서 어르신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월등히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가입, 로그인, 일정·식단정보 확인, 게시글 등록, 검색조회 등 총 6개 항목을 놓고 봤을 때 개편 전엔 평균 2개만 성공했다면, 개편 후엔 평균 4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걸리는 시간도 약 두 배 단축됐다.

홈페이지를 사용해본 한 어르신은 "서울디지털재단의 「고령층 친화 디지털접근성 표준」이 사소해보이지만 실제 사용에는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무엇을 눌러야 할지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적용해 눈에 띄게 바뀐 영역은 ▲글자 크기 키우기 등 가독성 향상 ▲자주 사용하는 메뉴 메인화면에 배치 ▲적절한 조작기능 추가 ▲상징이미지(아이콘)에 설명 추가 ▲외래어는 한글로 변경 등이다.

첫째,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메인화면 속 이미지, 글자가 겹치지 않도록 콘텐츠 간 영역 구분을 명확히 했다. 중요한 글자는 크기를 키워 불필요한 여백을 최소화했다. 기존엔 이미지와 글자, 메뉴 탭이 혼재돼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어르신이 처음 화면을 마주할 때, 정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둘째,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그동안 발견하기 어려웠던 검색기능은 중심부에 노출시켜 한눈에 보이도록 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4가지 메뉴 ▲식단 ▲공지사항 ▲일정 ▲동영상의 바로가기 기능을 메인 화면 하단에 제공했다. 클릭 한 번으로 복지관에 전화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 바로가기 기능도 넣었다.

복지관 홈페이지의 경우 복지사, 자원봉사자, 어르신 등 다양한 사용자가 방문해 그동안 정보도 혼재돼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핵심 정보를 메인화면에 제공했다.

셋째, 복지관 공지사항을 메인화면에 노출할 때 추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이 보이도록 했고, 좌우 화살표를 삽입해 간단한 클릭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작기능을 추가했다.

넷째, 상징이미지(아이콘)에 한글 설명을 덧붙였다. 이미지만으로 해당 메뉴가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기능이였다.

예컨대, 전체메뉴(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1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pixel, 세로 44pixel) 이미지의 기능을 모르는 어르신이 대다수 있음을 고려해 이미지 밑에 한글 설명(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pixel, 세로 62pixel)을 넣었다.

다섯째, 어르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어단어(LOGIN, JOIN)는 한글(로그인, 회원가입)로 노출되도록 전면 수정했다.

이번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 적용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에 대한 실증사업으로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적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첫 시범적용을 계기로 어르신을 배려하는 여러 디지털기기·콘텐츠의 개선사항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이용 편의를 고려한 어르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디지털 격차해소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이번 적용 사례와 개선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2월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구립 복지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사용자들 위한 홈페이지를 구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서대문구, 영 케어러(Young Carer) 선제 발굴,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영 케어러(Young Carer) 즉, 가족에 대한 돌봄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분석하고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조사, 지원 방안 강구의 3단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서대문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대상 연령은 9~24세로 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 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 구는 올 연말까지 3가지 방법을 통해 '영 케어러' 발굴 조사에 나선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보(단전, 단수, 연체 등)를 토대로 9~24세 가구원을 있는 관내 위기세대를 조사한다. 전화와 우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 후 필요시 가정방문이나 내방 상담을 추진한다.

복지통장들은 이달 24일까지인 주민등록사실조사와 병행해 '영 케어러'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동주민센터로 연계한다.

관내 40개 초중고교의 교사들에게도 안내문을 제공해 '영 케어러' 발굴 시, 천사콜(02-330-1004)과 천사톡(카카오톡) 등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신고 창구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구는 '영 케어러'에 대한 간병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병원·복지 서비스 원스톱 돌봄지원 체계'를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강북삼성, 동신, 서울직실자, 세란, 세브란스 등 5개 병원과 실시하고 있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이 밖에도 '영 케어러'에 대한 복지지원 연계가 현장에서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상담 매뉴얼'을 제작한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영 케어러'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연구 개발한다는 목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가족 부양과 간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승기자



강북구, 똑똑한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서울 강북구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교차로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 선에 설치한 LED 전구가 빛을 내는 보행신호 보조 장치다. 빨간색과 녹색 빛이 기존 신호등과 동시에 동일인 색깔로 들어온다.

바닥 신호등은 여러 장점을 지닌다. 길 건너편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유용하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보행자에게 바뀐 신호를 알려 줘 돌발행동을 막을 수 있다. 야간에도 바닥에 길게 늘어난 신호등 불빛이 운전자가 서행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다.

설치구간은 사거리, 사고 다발지역, 초등학교 앞, 버스중앙차로 주변 등이다. 구는 총 161개 구역에

바닥신호등을 달기로 했다. 상반기에 58개를 끝냈고 이달까지 113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음성안내시스템 30여 개가 신호등과 같이 놓였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음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빨간불이 들어올 때 보행자 차도에 진입하면 경고하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온다. 녹색신호가 켜졌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LED 바닥 신호등과 음성안내 시스템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막는 시설물"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교통 안전시설물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보고 쓰고 탐구하는 정원 · · · 마포구, 식물 출판 특강 '정원의 언어' 개최



마포구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원의 언어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12월 특강으로 준비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와 출판 시장의 변화 양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식물 출판'을 주제로 창작자, 에세이스트, 연구자, 서점 MD 등의 식물 관련 교양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총 9개 강의로 선보인다.

그림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식물을 매개로 작업하는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각의 정원', 식물을 기르는 식집사들의 에세이와 최근 서점가에서 주목받는 식물 서적의 동향을 돌아보는 '쓰기의 정원', 자연·생태 전문 출판사와 식물학자이자 식물세밀화가인 연구자의 시선으로 주변 식물을 다시 보는 '탐구의 정원' 총 3개의 세션이 교차되며 3일간 진행된다.

첫 강연은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탐구의 정원-식물이 되다'로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로 알려진 신혜우 강사가 맡았다. 이어서 오후 4시 이종산 소설가의 '쓰기의

정원-식물과 함께 게으르게 회복하기', 오후 5시 30분 배현정 스포츠 대표의 '시각의 정원-함께 쓰는 산책'으로 이어진다.

특강은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출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강연일 오전 10시까지 참가 신청 링크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각 강연별로 500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자에게는 강연일 오후 1시에 문자메시지 및 메일로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원예 문화가 20~30대 젊은 층 사이로 퍼지며 식집사(식물+집사), 반려식물, 방구석 가드닝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대세가 됐다"라며 "출판 시장에도 이런 트렌드가 반영돼 식물 관련 책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식물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정원의 언어 온라인 특강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2020년 7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공공업무시설 2,3층에 2438㎡규모로 조성된 플랫폼 P는 첫 발

걸음을 내딛는 작은 출판사와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작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마포구의 대표적 창작 허브 공간이다.

이곳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소규모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 중 3층은 입주 창작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출판사뿐 아니라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북튜버 등 20개 입주사와 32명의 1인 창작자가 입주해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

2층은 책을 가교로 시민과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다. 다양한 특강이 열리는 다목적실 외에도 멀티미디어 실, 북앤라운지 등의 문화시설이 있어 출판 창작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식물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식물 출판 특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P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출판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남시 창작센터 성남 아티잔 본격 운영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에 창작자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생겼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 2층에 창작기업 입주공간 『창작센터 성남 아티잔』이 조성되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작센터-성남 아티잔』은 총 856㎡ 규모의 12개 독립형 창작기업 입주공간에 가구, 공예,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했으며, 성남시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가구, 자수·공예, 일러스트 등 창작결과물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창작센터 성남 아티잔』은 입주 창작기업 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과 비입주 창작기업들을 위한 개방형 창작지원공간을 1층 3개실에(168㎡) 추가로 조성하여 누구나 창작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공간에는 3D프린터, 각종 출력장비 등을 갖춘 장비실과 창작 클래스 룸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창작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 등 창작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작센터 성남 아티잔』 입주기업 ECOLLE B.T.A.F 김용선 대표는(업종:프랑스자수) “창작의 열기가 맞닿아 있는 『창작센터-성남 아티잔』에 많은 성남 시민들이 찾아주시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공유하는 ‘우리동네 창작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화성시 생활시장화인’ ‘K-핸드메이드페어’ 참가성료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생활문화센터는 ‘화성시 생활시장화(화)인(인)’의 시민운영자 13개 공방과 연계하여 수공예 전문 전시회 ‘K-핸드메이드페어 2021’에 참가해 화성시 생활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K-핸드메이드페어 2021’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핸드메이드 전시회로 12월 9~12일, 4일간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되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전시 주최사인(주)한국국제전시는 “화성시문화재단 ‘생활시장화인’의 경우 참가운영자들의 작품 수준이 매우 높고, 화성시 생활문화의 우수성과 수공예 특화 마켓 ‘생활시장화인’을 알리기 위해 홍보부스를 직접 꾸미고 작품으로 채워나가는 모습, 방문객에게 참여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계

를 유지하여 K-핸드메이드페어의 우수한 콘텐츠로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특히 전시 참가 결정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준비과정이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화성시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운영자’가 주인이 되어 운영 중인 화인마켓은 이번 전시 준비역시 간담회를 통해 준비했다. 참가부스 운영계획 발표, 부스 조성 방향 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각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재능과 노력을 나누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과 김도근 의원은 코엑스 현장을 방문해 시민운영자 한명 한명 만나 화성시 문화예술(수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힘써주는 것에 대해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시민운영자들이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빠른 시일 내 화성시문화재단을

통해 시민운영자들과 자리를 마련해 진자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시민운영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공예 전시회에서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고, 화성시 생활시장화인의 시민운영자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다가올 2022년 수공예 마켓 ‘생활시장화인’을 기다린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화성시 생활시장화인’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창작된 작품을 매개로 생활문화활동가(셀러)와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마켓형 문화행사이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철저한 방역준비로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관내 공방을 운영하는 생활문화 활동가를 대상



으로 ‘시민운영자’를 모집해,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민) 주도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2021 K-핸드메이드페어’ 참여 공방은 △바느질마녀(손뜨개, 원호순), △솔터공방(목공예, 민홍지), △화인규방(규방공예, 김애경), △미미네 공방(미니어처, 오은정), △이금주니트아카데미(손뜨개, 이금주), △이와삼공작소(도자공예·회화, 윤지현, 윤여성), △K작업실(퀼트, 김광경), △은가비글라스 작업실(유리공예, 장미정), △아토도예(도자공예, 박미원), △그림멜(손바느질, 서영숙, 송윤희), △라무통위빙(마크라메, 권은진), △나마네(흙패션, 조태경), △핑쿠베베(미싱공방, 맹경희) 등 총 13개 공방이다. 양시현/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최선”

하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사무실 현판식 개최



하남시는 지난 13일 하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인 ‘한국노동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하남시청공무직지부’가 시 청사에 조합사무실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조합사무실 개소는 2020년 단체협약으로 단독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합의해 임시사무실을 거쳐 이날 시청 본관 4층에 자리를 잡게 됐다. 현판식은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방미숙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과 이용배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연우 하남시청 지부장 등 노조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상호 시장은 “공무직 노조가 자체 사무공간을 청사 안에 마련함으로써 조직 위상과 책임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하남시는 공무직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배 위원장은 “하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사무실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와 노조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시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용인시 백군기 시장, 2021년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기초단체장부문 녹색성장대상...도시자연공원 조성등 친환경생태도시공로 인정받아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021년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녹색성장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

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해 자치단체장·의정·행정 등 각 분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백 시장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 계약을 활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신봉3근린공원 등 13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 등 녹색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 누구나 녹색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며 “110만 용인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상패는 우편으로 전달됐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사관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정의로운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양시,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공모에서 'Youth 아고라 시즌2'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렸다. 'Youth 아고라 시즌2'는 작년 시즌1에 이어 안양시가 2년 연속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이다.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한 워크숍, 기초교육, 전문 멘토링 과정을 진행하고, 제안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투표를 실시하는 등 시·공간을 넘어 팬데믹시대 청소년 참여활동의 표준을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길거리 흡연문제 개선방안' 등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반영되는 성과를 얻으며 청소년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호평이다.

시는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자체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노력도와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시는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3천5백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관내 많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안양시가 청소년 참여활동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안양시 청소년들의 빛나는 정책제안으로 안양의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도,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으로 설정했으며, 4개 추진전략은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주택 지역 허

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도는 5년간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포함해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하는데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

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주도형(공공임대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 4개의 공급모형을 설계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capital area
수도권I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광명시 舊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산업·연구·창업지원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광명시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舊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문제 해결해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舊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14일 하안동에 위치한 舊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향후 산업·연구·창업지원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 박승원 광명시장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참석, 광명시 개발방향 제시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를 개최하여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에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심의위는 이중 광명시 하안동 소재 국유지인 舊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산업·연구·창업지원을 위한 복합 클러스터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심의위에서는 전례 없이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박승원 광명시장이 심의위에 참석했다. 광명시는 해당 부지가 단순히 주택공급 방식의 개발이 아닌 청년 창업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오랜 기간 부지 활용이 어려워 본 사업 추진을 누구보다 염원하였던 인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



행하기로 했다.

■ 40년간 활용되지 못한 공간을 되찾기 위한 민선7기 광명시의 노력 이번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하안동 국유지는 1981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개관되어 201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폐쇄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광명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 아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광명시의 핵심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서울시 소유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문제 해결 및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선7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민선7기 출범 후, 광명시는 지체 없이 부지 소유주체인 서울시와의

부지 활용에 관한 협의를 추진했다. 2019년 4월, 박승원 광명시장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양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절차가 지체되던 중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토지교환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가 토지교환 대상에 포함되어 2021년 7월, 국유지로 전환됐다.

■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갖춘 국유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해당부지의 국유지 전환이 결정되면서 부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광명시의 노력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국유재산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여 국유재산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토지개발 사업 수탁기관과의 실

무협의도 수차례 진행됐다. 더불어 국유지 개발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래산업 관련 동향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명시민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민선7기 광명시의 강한 추진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안동 국유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지 선정을 통해 하안동 국유지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유지의 특성상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지가 개발되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국유지 개발 사업으로 안정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광명시민이 활용하지 못한 공간을 국유지 개발을 통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명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제1호 공약사업을 완성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은 2022년 공기업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인천 강화군, 원도심 인증샷 이벤트 '강화 원도심 사진여행' 운영

강화군이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인증샷 이벤트 '강화 원도심 사진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 원도심'은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한 강화산성과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성곽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미래체험관, 소창체험관 등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다. 여행객들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며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강화 원도심 사진 여행'은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스태프 투어로 강화 원도심 내 주요관광지 사진 인증투어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원도심 내 지정장소 4개소, 자유장소 1개소, 소상공인 가게(식당,카페 등)에서 사용한 5,000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강화군 한옥관광안내소'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 완주확인이 되면 한옥관광안내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이며, 지난달에는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로도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비대면 여행지로 소문이 나면서 연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도심 골목을 걸으며 구석구석에 숨겨있는 강화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화 원도심 사진여행'을 기획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강화군을 방문해 강화의 역사·문화·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성남시 '제8회 행복마을 한마당'
19일 온라인 개최

성남시는 '제8회 행복마을 한마당'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6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하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다.

"마을, 함께 사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하는 이날 행사는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한마당 행사는 마을공동체 여행, 축하공연, 바자회, 토크콘서트 등으로 꾸며진다.

마을공동체 여행은 9개 공동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다. 수정지역의 '만사태평' '동네 작은 도서관', '장생 재미', 중원지역의 '마을 학교 섬마을 공동체', '책이랑 도서관', '은행골 어울터', 분당지역의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 '뜨다방', '무지개 세상' 등의 마을공동체에 대해 알 수 있다.

중담 양상블, 어찌다 여기까지, 노리더 마을밴드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바자회 코너는 성남지역 20여 명의 마을활동가가 기부한 가죽 세트, 커피나무, 의류, 디퓨저 등의 물품을 유튜브로 경매한다.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성남시 새물이새남아침에 전액 기부한다.

토크콘서트 코너는 마을활동가 5명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남시 주민자치과장은 "시민과 마을활동가들이 어우러져 행사를 즐기고, 새로운 마을공동체 활동을 모색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2021. 12. 19. (일) 15:00-18:30
2021 제8회 성남시 행복마을 한마당
다들 한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다

주요프로그램
1. 마을공동체 여행: 성남시 9개 마을공동체 소개
2. 바자회: 마을활동가 기부품 경매
3. 토크콘서트: 마을활동가 5명 인터뷰
4. 축하공연: 양상블, 어찌다 여기까지, 노리더 마을밴드

문의: 031-729-0747

안산시 SNS, iEco어워드 인터넷 소통분야3년 연속 대상

한 해 동안 SNS로 시민과 활발히 소통한 성과 인정받아



시민과 활발히 소통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안산시는 올해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 콘텐츠'와 'O월의 안산시가 아름다워 인증샷 이벤트' 등의 시민참여 콘텐츠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윤화섭 안산시장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시정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8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플랫폼을 활용한 세로영상 콘텐츠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년간 구독자(팔로워)가 약 2배 이상 늘어 현재 22만 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엄태준 이천시장, "지구 최후의 도시" 프로젝트 제안

엄태준 이천시장의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구 최후의 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엄태준 시장은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 내 순회 기획회의 제4차 안성 행사(12월10일)에서 "작금의 팬데믹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이자, 코로나 19를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인류의 생존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라고 역설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최후의 도시라는 생각으로 도시 내 필요한 자원에 대해 리사이클링과 순환을 시작으로 하는 '문명의 대전환'을 이뤄 기후위기의 벼랑 끝에서 지구를 수호하고 도시 미래를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엄태준 이천시장장은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자연재해는 민생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세계화'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소비자본주의와 탄소중심의 대량생산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반도체 도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강구하자며 도시 간의 생태연대를 제안했다.

이천시는 이러한 기초 아래 시 예산부터 상향식 배분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편성방식인 「마을단위 자치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을공동



체 사업을 펼쳐왔고, 2021년에도 관내 49개 공동체가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되어왔으며 2022년에는 주민자치회가 본격 도입되어 14개 읍면동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또 농산물 지역순환 운동인 「푸드플랜」 운동역시 이천시가 먹거리 종합계획차원에서 기획생산체계 마을리더를 교육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해 생산부터 판로까지 농산물 순환 유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성용기자

수원시 삼성전자 임직원, 6월에 이어 수원시 노인가구에 또 한번 냉장고 500대 선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비대면 봉사활동(삼성전자 디지털시티 Walk on, Give on)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수원시 노인 가구에 냉장고 500대를 기부했다.

지난 6월에도 노인 가구에 냉장고 500대를 기부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올해 총 1000대의 냉장고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14일 연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에너지효율 1등급 냉장고 500대(3060)를 기증했다. 냉장고 500대 가격은 총 2억 5000만 원(1대 50만 원)에 이른다.

이날 전달식에는 연태영 시장, 삼성전자 나기훈 부사장, 김영호 부사장, 송봉섭 부사장, 사원대표 최장원씨, 이수경 사회봉사단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기증한 냉장고는 12월 말까지 44개 동 저소득 어르신 500가구에 설치한다.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11월 홀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동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했다.

삼성전자가 대상 어르신이 요청



한 날에 집을 방문해 냉장고를 설치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냉장고 청소, 설치 현장 정리를 담당한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수원시 소외계층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태블릿PC 790대(4억 원 상당)를 기증했다.

지난 1년 동안 냉장고, 태블릿PC 등 총 9억 원 상당 물품을 기증했

조혜영기자

화성시, 로컬푸드 지수 평가 '최우수상' 수상



14일, 농식품부 주관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2관왕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족도시를 조성 중인 화성시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수도권 내 유일하게 최우수상과 안전성 부문 특별상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시는 상금 800만 원을 획득, 로컬푸드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 '화성 푸드플랜 2030' 수립을 시작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민간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에 납품되는 로컬푸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잔류농약검사와 중금속 검사, 미질 DNA검사 등 다양한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화성 로컬푸드를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도 선정된바 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15일부터 송도 모든 지역에서 'I-MOD(아이모드) 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차량 호출,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인천광역시시는 현재 송도 2, 4, 5동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아이모드)'를 12월 15일부터 송도 1, 3동까지 확대해 송도 모든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해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는 지난해 10월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는 송도국제도시 일부(2, 4, 5동)에서도 운영을 시작했다.

송도국제도시시는 운영을 시작한 7월

에는 하루 평균 36명이 이용하였으나, 최근 11월에는 270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도시형 운영모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I-MOD버스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I-MOD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I-MOD' 또는 '아이모드'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I-MOD 버스를 호출하면 된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내년 1월부터는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에도 수요응답형 I-MOD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평택시, 2021 지역사회통합돌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평택시는 20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체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조례 제정, 평택형 지역사회복지 연구 등 체계적인 준비로 선도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전국 12개 기관 표창에 평택시가 포함됐다.

평택시는 시민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비전에 따라 2019년도부터 평택형 복지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했다.

특히 2020년 정책기획 사업인 '내가 시장이라면'의 주민들의 제안을 평택시 협치 의제로 선정하여 민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 자체 사업비로 평택시에 알맞은 모델을 구축, 확대해감으로

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제정 ▲경기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지역육구조사 및 자원조사, 건강상담, 주거안전서비스, 한방의료서비스 ▲평택지역활성센터(커뮤니티케어사업단)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LH매입임대 제공 및 집수리, 청소 지원 ▲평택복지재단의 평택형 복지모델 개발연구 등이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0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12.8. 수)」 후속조치로 경마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이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내 밀집도가 높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경마시설에 대한 집중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 중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경마시설 이용자의 △집중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사전예약제·지정좌석제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준수여부 등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김중훈 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등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마시설 종사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이용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마시설 입장 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거리두기 이행과 더불어 경마시설 내 흡연장 이용수칙 준수, 음료를 마신 후 마스크 즉시착용, 지정좌석 무단이석 금지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를 통해 방역체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마사회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방역점검계획에 따라 총 5개반 15명의 자체 점검반을 가동하여,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나/기자

포항시, 동절기 ‘동파예방 기동반’ 운영…한파 대비 상수도 시설 점검 만전

포항시는 동절기 동파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계량기 교체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파예방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파예방 기동반 운영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이며, 3개 반 6명으로 편성돼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계량기 교체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시는 기동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해 동파신고 즉시 응급 복구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수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

다.

또한, 시민들에게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통 내부 보온제(담요, 스티로폼 등) 설치 △영하 5℃ 이하 예보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고 욕조에 물을 받아 사용하기 △물탱크와 연결되는 상수도관은 스티로폼 등으로 보온조치 △수도관과 계량기가 떨어져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 사용 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도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노이/기자

제주시,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제주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제주시 전체 어린이집 354개소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303개소 368대이다. 이 중 293개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에 의거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운영하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 보호표지, 보험 등 어린이통학버

스 요건 구비 여부 △운전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확인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등·하원 시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8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장 합동 점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은/기자

전남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21일까지 안전축산물공급 위해 출생·양도신고 등 준수여부 확인

전남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1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사항 위반이 추정되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부착 상태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과 일치 여부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맹단 사항은



김영만/기자

전주시, 방역점검반·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일 동안 3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방역점검반과 재택치료TF팀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기존보다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가동하고 국·소·구청장 책임 하에 방역 일일점검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212개소, 424명으로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최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시설 확대 △출입자 수명부 단독 사용금지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라인을 확대했으며,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은 비수도권의 경우 8인까지 가능

하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의무화시설은 당초 유흥주점 등 5종 시설에서 식당·카페, PC방, 학원 등을 포함해 16종 시설로 확대돼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된다. 화산체육관과 실내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운영되지만, 수영장을 제외한 샤워실은 26일까지 2주간 운영되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경기도, 병가중인 직원에 출근 중용, 노사협의회 부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중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

며 출근을 중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피해자 E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했는데 B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쁘네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고 말했다. 회의 당일에는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 여기에서 일은 하나도 못 본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쁘네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의 당사자인 E씨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고, 이미 결재가 끝난 뒤 전화를 걸어 한 발언들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공무원이거나 2년 미만 신규직원인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혜영/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세어도 주요 추진사업 점검

어촌뉴딜300 및 세어도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사항 등

인천광역시 13일 서구 세어도를 찾아 어촌뉴딜300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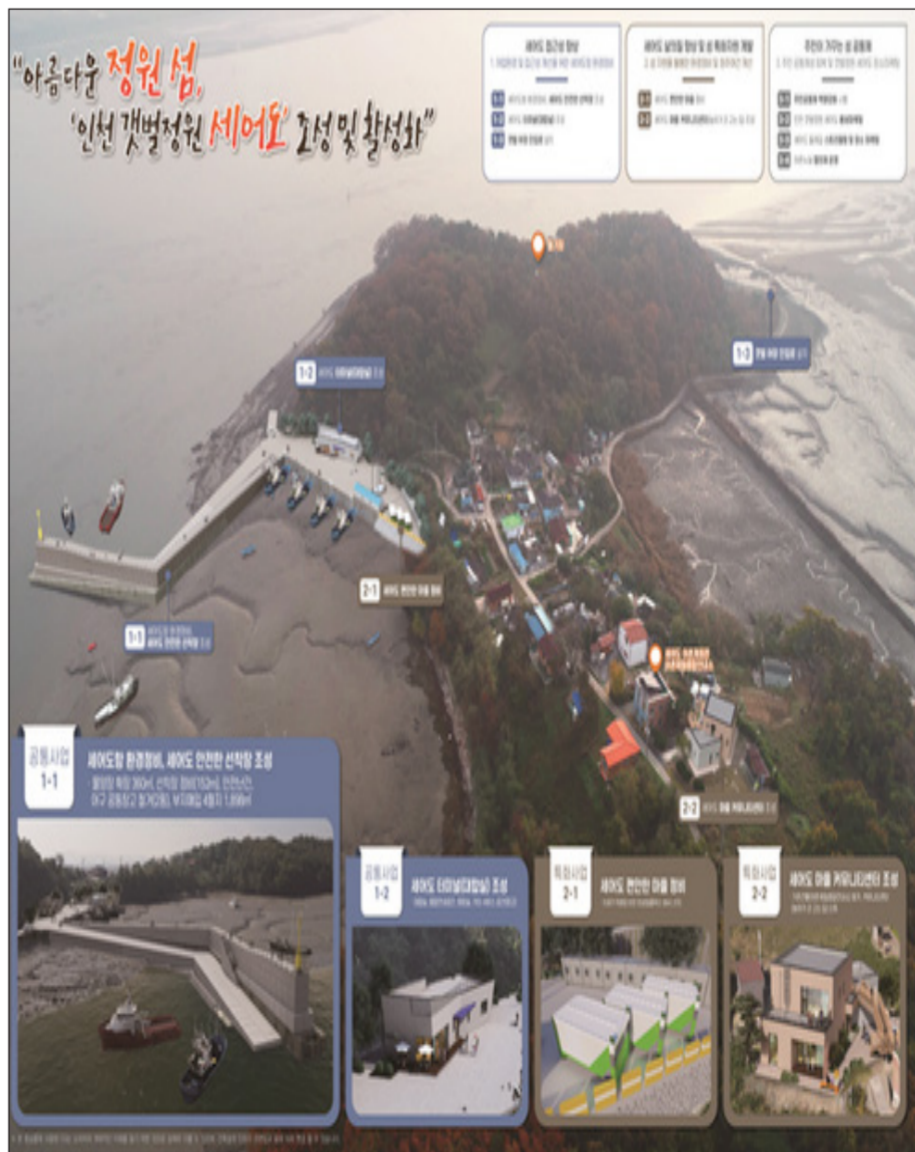
이날 현장방문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빛물저장시설 및 도선건조 사업 등 세어도 접근성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세어도를 인천 갯벌정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이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해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중구·서구·강화군·옹진군의 항·포구 13개소와 기항지 6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신규 사업 공모 결과로 3개소와 여객선 기항지 개선 사업 1개소가 신규 선정돼 국비 272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세어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어촌뉴딜30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현장과 선착장·물양장 확장 사업 현



장 등을 점검했다.

박남춘 시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겸비한 세어도가 도시화와 어항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어촌뉴딜 300을 비롯한 세어도 지원 사업들

김종남/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7

완도해경,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과 홍보계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되며, 선박에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2020년 국제항해 선박 적용에 이어 2021년부터는 국내항해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이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 원평동 주민 생활민원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 접수된 평택 곽평지구 교차로 교통망과 관련하여 원평동 개발 위원, 통·반장, 원평동 주민 및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참석 주민들은 곽평지구 주택개발과 연계하여 과거의 교차로를 변경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변경 전보다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으며 전면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직접 현장의 교통상황을 체험한 후 현재 상황은 주민들의 의견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안전과 사람이 우선시 되는 교통 체계로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참석한 시 업무 관계자에게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오늘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안을 공개하여 주민들께서 원하는 교차로 교통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15일 수요일

화랑마을, '2021년 화랑마을 이벤트' 성황리 종료

경주시 화랑마을이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2021년 화랑마을 이벤트'가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번 이벤트는 앞서 진행된 소화행 화랑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화랑마을 수영장'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기별 화랑마을의 다양한 모습과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주요내용은 화랑마을 이용후기 작성하기, 화랑마을 포토존 소개하기, 화랑마을 정찬하기, 조성퀴즈, 친구에게 국공체험 알리기, 사진 콘테스트 등이다.

이벤트 결과 551명이 응모해 79명이 당첨됐다. 당첨자들에게는 기프트콘 등 선물이 주어졌다.

화랑마을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이벤트로 SNS 등에 화랑마을 방문 후기와 다양한 사진이 널리 홍보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로 즐거움을 주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길기자



경북도,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농업에 활력

농가 소득 64% 증가, 연간 일자리 창출 353명, 농창업 증가 추세

경상북도는 올해 지역별 맞춤형 농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이 64% 오르고 연간 35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167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어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군특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추진해 농가는 건전 종자, 신기술의 종합 투입,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 받았다.

올 해까지 115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경북 농업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은 증가했다.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생산 단지를 규모화 하는 한편, 농산물 재배 신기술을 적용해 단위 면적당 조수입이 늘었다.

또 효율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기자재를 지원으로 경영비는 줄었다. 단순한 1차 생산물의 판매에 그치

지 않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ha당 평균 9600만원 수준이던 농가 소득이 1억 5800만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전과 비교 했을 때 64% 증가한 수치다.

그 예로 청송은 자두나무를 Y자형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50% 늘렸다.

Y자형으로 나무를 키우게 되면 과수원을 농기계로 관리하기가 유리해 일반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이 30% 가량 적게 든다.

청송은 또 자두소스 비빔면을 개발해 판매에 나선다. 생과 판매가 어려워 버려졌던 자두를 가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었다.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재배, 수확의 생산 관리와 선별, 포장, 체형 프로그램 운영 인력 등 연간 35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거뒀다.

이 중에서 204명이 상시 채용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눈에 띄는 점은 농창업의 증가이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1명 → 7명 → 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도시의 높은 주거비, 취업난, 위라벨 문화의 보편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 된다면 농업인구 감소, 농촌 소멸 문제의 해법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경북도만의 차별화로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다.

포항의 경우, 화분 재배로 우수한 품질의 산딸기를 생산해 TV홈쇼핑에서 11톤을 판매했다.

또한 생산 기간을 늘려 분산 출하로 안정적인 가격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다.

봉화는 '사과는 빨갭거나(홍로, 부사 등) 초록색(아오리)이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에 황색 사과 품종으로 차별화를 뒀다.

흔히 먹던 사과와는 다른 색깔과 특유의 아삭한 식감, 청량한 맛이 소비자의 입맛을 끌었다. '골든애플'이라는 이름으로 봉화 사과의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경북도는 지역 농업 활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간다.

167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18개 시·군에 25분야에 지원한다. △안동·영주 지방 △영천 마늘 △상주 포도 △성주 아열대작물 △예천 화훼 △울릉 산채가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에도 지역 농산물 수출은 20% 늘었다. 이는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예"라며, "지역 농산물이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달성군, 주요 관광지에 LED 별빛정원 조성



달성군이 송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LED등 50만구가 빛나는 별빛정원을 조성해 점등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주요 관광지인 송해공원, 사문진주막촌,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 LED등을 설치하고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점등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을 위하고 동절기 가뭄만만 야경 명소를 조성하고자 관내 관광지 등 3개소에 LED등 50만구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다.

송해공원에는 국화 축제에 사용한 모형을 재활용한 LED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은 무궁화동산 일원을 은하수 조명으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사문진주막터에는 장미화단과 꽃단배를 활용하여 바다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2개의 무지개 터널과 꽃탑을 활용한 수직 조명은 포토존으로 방문객들의 사랑받고 있다. 특히, 25m가 넘는 양버즘나무 3그루에 설치한 은하수 조명은 수목에 설치한 조명 중 국내 최대 높이로 웅장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방문객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혁기자

포항시, 영일만 기적 이룩한 그의 정신 영원히, 박태준 선생 추모식 개최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3일 청암 박태준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과 사상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병욱 국회의원,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은 추모식 행사 전 청암 박태준 선생 동상을 찾아 헌화를 분향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가족, 포스코 임직원,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지금의 포항을 만들어 낸 청암 박태준 선생의 숭고한 뜻을 대표해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대공 포스코 창업세대 대표의 추모사,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병욱 국회의원,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기념사를 진행해 참석한 내빈들을 환영했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1968년 철강불모지에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해 한국의 철강산업을 세

계최고 수준으로 키워내고, 교육보

국에 헌신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을 설립한 청암 박태준 정신이야말로 포항시민들이 이어나가야 할 신념이자 사상"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추모식은 고인의 생전 영상과 마지막 연설을 통해 "지금의 포스코가 있기까지 시민들의 헌신과 공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던 박태준 선생의 뜻을 전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날의 포항을 만들고, 영일만의 기적과 신화를 이룩한 박태준 회장의 변치 않는 신념과 정신은 포항시민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10주기 추모의 밤 공연에서는 포항 출신 글로벌 뮤지션들인 바리톤 우주호, 소프라노 김예은,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이종은, 기타리스트 김화중 등이 추모식을 품격있게 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포항지역사회 연구소의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전산인 서울대 사회학 교수, 김광배 연세대 사회학 교수, 이대환 작가를 초청해 '한국사회, 왜 박태준 정신을 부르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노이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산나물제육불고기 밀키트 드셔보세요~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 혼밥족을 위한 산나물 '밀키트' 나눔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12월 14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에서 관내 혼밥족을 대상으로 산나물제육불고기 밀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관내 여성 학습단체로 매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 교육을 통해 회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영양의 지역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앞선수범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특산물 특히, 영양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건조된 산나물을 활용하여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의 지역 특화식품 연구개발 메뉴중의 하나인 산나물제육불고기 밀키트의 시장성 검토와 우리음식연구회의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과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조리를 해야 하는 밀키트의 특성상 나눔 대상을 관내 혼밥족인 젊은

층으로 잡아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댓글 등록으로 7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만에 모두 신청 완료되어 지역 내의 밀키트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밀키트 수령방법도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로 무료해진 일상에 약간의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

이목용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특화음식의 연구개발로 영양만의 먹거리를 만들고,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영양가득 영양농산물의 많은 소비가 농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숙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음식연구회가 영양군의 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구회의 노력과 역할도 당부한다."고 하였다.

김세기기자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다음에서 '온심마켓' 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 를 검색하세요!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통영統營 _ 온빛, 섬빛에 물들다

온빛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사진가 17인의 다각적 시선으로 기록된 통영 사진전 '통영 _ 온빛, 섬빛에 물들다'를 오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간 통영시청 2청사 해미당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온빛다큐멘터리’는 2011년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황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사진가들이다. 사진의 본질인 기록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진을 통해 이 시대를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모였다. 2016년 첫 워크숍을 통영에서 열어 전국의 50여명의 사진인들은 통영의 여러 면면에 매료되었고, 인제고 이 고장을 사진으로 담아두자는 약속을 했었다.

이번 전시 '통영 _ 온빛, 섬빛에 물들다'는 바로 그 약속의 결과물이다. 이삼희, 백성현, 박창현, 장재윤 등 통영 현지의 사진가들과 강위원, 김상환, 박종면, 박찬호, 신병문, 유별남 등 온빛다큐멘터리 소속 사진가 총 17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온빛다큐멘터리 석재현 회장이 총괄 디렉팅을 맡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영시가 적극 협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17명의 사진가들은 집중력 있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과 공간의 기록들은 섬, 통영에 깃들, 마을 빼앗김, 항구의 매력, 마을 그리고 삶이라는 5개의 카테고리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와 사진집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전시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통영시 제2청사 해미당갤러리에서 열리며, 40여 점의 사진이 전시작으로 선보인다. 같은 제목의 '통영 _ 온빛, 섬빛에 물들다' 사진집이 전시로 다 볼 수 없는 통영을 담고 있다.

온빛다큐멘터리 관계자는 “코로나19 속 예민한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행사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준비했고, 관람객 분들도 방역수칙을 지켜 관람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하동군 2021년 한해 상복 터졌네

하동군, 올 한해 각종 분야 뚜렷한 성과...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등 잇단 수상

하동군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공공기관 등이 주관한 의미 있는 큰 상을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행복한 국민 튼튼한 하동' 실현을 위해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하동군이 지난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도시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장 및 단체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하동군은 인구감소 등 쇠퇴의 길에 접어든 하동읍을 미래 100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하동읍 승격 83년만에 대변혁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제 민선 6·7기 들어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경전선 폐철도 공원화 사업, 동서 화합의 공간 하모니카 조성, 신호등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녹지 공간 조성, 100년 가치를 반영한 상징나무 식재, 도심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군은 지방자치혁신대상 외에 올 상반기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탄소없는 마을 벨트 조성으로 '2021 거버넌스 지방

정치대상' 공동체육량 증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화개전변 경관보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개전변 관리·보전의 새로운 가치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토대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게다가 하동녹차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특별 기획·제작한 '인생, 녹차' 편이 2021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SO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전통차농업은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에 3년 연속 선정돼 2022 세계차엑스포가 왜 하동에서 개최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제15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연계 힐링관광 활성화 부문 올해의 축제 리더상과 제24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온라인 커머스 부문 금상 및 머천다이즈 부문 은상을 받아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소설 '도지'의 무대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최참판대 하동 한옥문화관'이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함께 현판을 받아 한옥 건축물과 더불어 체험형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게 됐다.

윤상기 군수는 "올해 각종 분야에서 많은 수상 소식을 들은 건 전 공무원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전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해는 점평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위해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3S(Sky, Sea, Shore)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

부산시는 오는 13일 14시 부산시청에서 해양도시 부산형 유에이엠(UAM,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을 위한 '3S(Sky, Sea, Shore)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현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케이-유에이엠(K-UAM) 정책방향 및 비전, 부산 유에이엠 항로 운용개념 수립, 유에이엠과 버티포트, 유에이엠 교통관리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유에이엠산업은 신규·특수 항공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국내시장 보호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한 신(新)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항공, 자동차, 전자 산업의 세계적 대기업들

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져 중앙정부에서도 산업육성 로드맵 발표, 유에이엠 팀 코리아(UAM Team Korea) 등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버티포트(Vertiport)는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필요한 공항과는 달리 도심형 공항으로 유에이엠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며, 여기에는 기체의 충전, 현장 MRO(항공기 정비), 이착륙 및 비행 관제 등 다양한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신공항 건설 및 항만물류와 연계하여 하늘길(Sky), 바닷길(Sea), 해양도시(Shore)를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유·무인 통합 스마트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신항-북항(부산역)-이기대-동백섬 해안로를 따라 유에이엠 항로 개발, 거점별 버티스탑 설치, 실증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궁영기/기자

남해군, 도시재생뉴딜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1구간 개통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해읍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의 가장 긴 구간인 1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8일 개통됐다.

1구간 공사는 '정관장'에서 '새남해축산' 구간 총 170미터에서 진행됐으며, 중앙부 도로로는 화강석 판석(폭 4미터), 가장자리 보행 부분은 아스콘포장에 도막(녹색 및 노란색)으로 시공됐다.

기존 아스콘 전체를 걷어내고 상·하수도 맨홀 정비와 CCTV설치를 위한 배관 매설작업을 병행했다. 도로경관 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여름에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보다 복사열

이 줄어들어 더욱 쾌적한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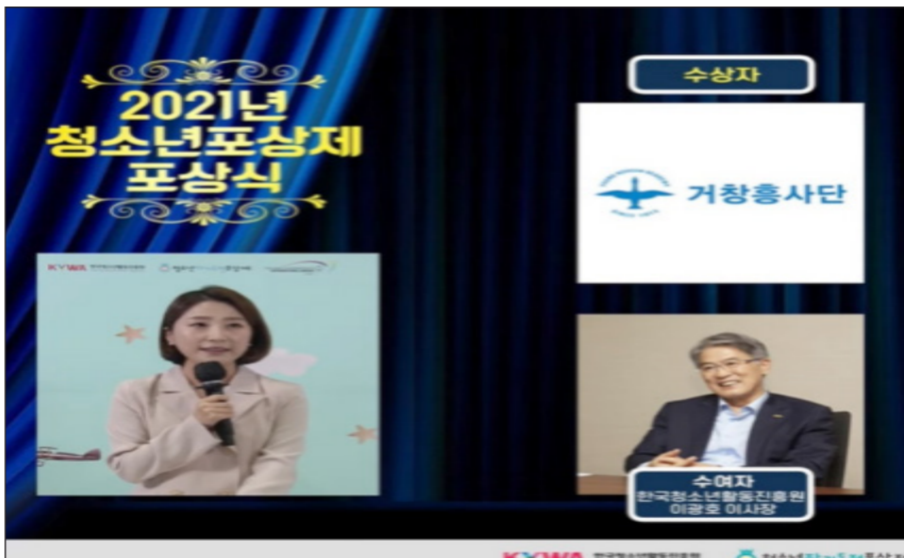
이와 함께 남해농협~회나무 제2구간은 12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중앙부도로는 화강석 판석(폭 5미터)이며, 가장자리 보행부분은 아스콘포장 위에 적색과 주황색 도막시공 된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회나무 일대는 길거리 공원과 플라멩크 등이 가능한 광장으로 조성되며,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1구간 주변상가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창군, 청소년포상제 우수 운영기관 선정

거창홍사단, 포상제 운영 잘한다! 청소년, 포상제 활동하며 자란다!



거창군은 유튜브로 진행된 '2021년 청소년포상제 온라인 포상식'에서 거창홍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받았다

정년포상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정책사업으로서 만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참여 가능

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만7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 가능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로 구분된다.

또한, 청소년이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 및 탐험활동의 영역별 자기 주도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통해 잠재력 개발과 삶의 기술을 익히

실제 부산의 해안로를 따라 설치된 교통망(울속도대교-남항대교-부산항대교-신선대지하차도-광안대교)은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여 이를 거치는 물류, 비즈니스 등 물류량이 상당해 유에이엠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또한, 이기대-동백섬 구간은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박준호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항만물류 도시, 해양관광 도시,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 중인 부산은 유에이엠이 정착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관련 규제 개선, 소재 부품 기반 구축, 최적화된 항로 개발 등 다양한 분석과 정책을 추진하여 부산을 유에이엠 선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area

영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9

경남교육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홍보물 제작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홍보 영상물을 합동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6건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 운전 불이행이다. 이에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홍보영상은, '스쿨존 서행운전', '어린이가 보이면 멈춤', '불법주차 금지',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걷기', '휴대폰 보면서 걷지 않기'를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각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식 유튜브에 게재하고 전 화상으로 안내하여 학생 교통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지자체와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홍보 채널 및 TV, 라디오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준호 교육감은 "통학로 안전관리는 우리 교육청과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번 공동 홍보를 시작으로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의 행복한 미래교육을 꿈꾸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14일 오전 그랜드머큐어앰배서드 청원에서 행복학교 학부모와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학부모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원격 참여와 대면 참여를 병행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행복학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경험을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복학교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학부모는 행복학교 문화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움과 협력의 경남 미래형 학교인 행복학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행복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학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박준호 교육감과 허신탄회장의 의견을 나눴다. 모든 협의 때는 행복학교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진행자로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민주적 학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피상리테이터(촉진자) 기법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로 진행했다. 참가한 학부모는 "공감콘서트에서 학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마음 열기와 관계 맺기,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복학교의 민주적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 문화를 만들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교육감은 "행복학교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아주 높다는 것을 느꼈고, 행복학교의 민주적 학교 문화가 모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로 인한 사회 변화와 교육과정 개정 상황 속에서 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을 단순히 안내하는 역할이 아닌 교육과정을 함께 만드는 참여자이다."라며 학부모의 역할을 주문했다.

윤광남/대기자

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거창홍사단은 2017년부터 청소년 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금장 인증 9명, 은장 인증 13명, 동장 인증 28명 등 총 62명이 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이 도내 최초로 금장을 인증받았고 다양한 관련 부문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수상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 동안의 포상제 운영 우수성과 지속성,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활동 대응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아 청소년포상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 선생님과 청소년들이 지난 5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이 빛을 발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통해 자기 성장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창원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한 시민에 인센티브 지급

창원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228명 중자가용 주행거리 감축한 181명에 대해 인센티브 1342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가 평소보다 주행거리를 줄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정의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참여자 모집하여 10월까지 7개월간 감축 이행을 평가한 결과 참여자의 79.4%인 181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평균 주행거리

대비 40%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자의 절반이 최대 인센티브 지급액인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또한, 시는 12월 34,717세대에 3억 2천만원의 2021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탄소중립 시민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시간 7년 7개월 '기후위기시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우리 일상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과제이다. 탄소중립은 시민의 인식 변화와 작은 실천이 중요하므로, '손수건 사용하기'와 같은 일상 속 기후

행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윤광남/대기자

A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강진군, 집중호우 피해 가구 사랑의 집짓기로 안전한 보급자리 제공

강진군은 지난 10일 대구면 계치마을에서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 제33호 준공 및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식에는 이은욱 군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강진로타리클럽 김승민 회장 및 회원들과 마을 주민 등 45명이 참석해 입주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입주한 33호 대상자는 장애가구로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노후로 붕괴 우려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군은 강진로타리클럽과 전남공동모금회 주택 신축 매칭그랜트지원 사업을 연계해 올해 8월부터 보급 자리 마련에 나섰다. 강진군 1,000만 원, 전남공동모금회 2,250만 원, 강진로타리클럽 800만 원, 강진군 지정기탁 후원금 450만 원을 모아 총 4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대구면 계치마을에 16평 규모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상자는 "쾌적하고 아늑한 새 보급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겨울 날씨에도 난방이 잘돼 추위 걱정이 없다. 내가족이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려해주시는 집에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며 기쁨과 감사함을 표했다.

이은욱 군수는 "33번째 사랑의 집이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남공동모금회 및 강진로타리클럽 김승민 회장 및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진군은 공공인대주택 제공과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민·관 공동협력력 따듯한 강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호 주택을 신축했다.

김장길기자

영광군, 연말연시 이동 및 모임 자제 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군, 영광군의회, 안전보안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 및 모임 자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관내 확진자 급증과 인근 함평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이동 및 모임 증가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천적인 방역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군청 광장에서 참여자 방역 동참 다짐을 시작으로 영광버스터미널까지 가드행진 및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배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슬로건 및 ▲이동·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필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확진자 감소 전환 및 오미크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께서는 연말연시 이동·모임 자제, 타 지역 가족·지인 간 접촉 최소화, 의심증상 시 PCR 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전남도-지자체-조선기업, 인력 부족 해소 맞손

전라남도와 지자체, 대불산단 입주 기업이 조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손잡고 나섰다.

전남도는 13일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도내 조선·해양기업 대표 및 노동자,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을 개최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남도,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를 비롯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과 이 두 기업의 협력사 협의회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건의사항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 인상 ▲외국인력 도입 간소화 등 절차 개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 ▲정부 산단대개조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지정, 총 5건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 결과, 2022년 전남지역 조선인력은 1천21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기업 등 산학연관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조선인력 수급 지원 TF팀' 운영, 현장에서 요구하는 조선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이번 공동건의문에 담았다.

전남도는 지역의 뜻을 모아 채택



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최종 반영하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 인력수급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채용특별지원금 최대 900만 원 지원

및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총 1천364명의 조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년 초 조선업 특화 일자리 박람회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선 조선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장도 수여했다. 최홍식 신우산업(주) 대표이사, 차동권 대상중공업 차장 등 1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4명)과 도시사 표창(10명)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조선업은 전남 서부권의 경제를 책임지는 전남 대표 주력산업으로, 재도약할 시점에 서 있다"며 "내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건의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떠나간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현장이 활기를 되찾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만기자

목포시,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공동 건의

목포시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13일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열린 제13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조선업체 등과 함께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도내 조선소 선박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 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조선경기 불황 시 대규모 인력 조정 여파로 수급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했다.

참여 기관·업체들은 조선업 특별고용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조선 기능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훈련기간 중 최저생계비(4인 가구 146만원) 보장이 어려워 훈련생 모집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40만 원인 훈련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코로나 상황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외국인 인력의 잦은 이직 등으로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급 E-7 비자 확대 및 도입 절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건의했다. 목포 출장소는 타지역 출장소와 달리 도시지역까지 담당하고 있어 관할지역이 넓고, 직원수에 대비해 등록 외국인이 많아 민원업무 처리가 심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산업 밸류체인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불산단, 삼진산단 등에 대한 산단대개조사업 지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선·해양산업은 서남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력산업인 만큼 간절한 뜻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진도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전국 곳곳에서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하고, 전남권에도 하루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긴급 대책 회의와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방역 상황 전방을 재점검했다.

회의를 통해 종교시설과 식당, 카페 등 고위험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부서별 대응체계를 확인했고, 지난 13일(월) 철마광장에서 자율적인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는 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진도읍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 회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도읍을 3개 방면으로 나누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연말연시 모임·이동자제 홍보와 함께 마스크와 핫팩 등을 주변 상가에 배부하면서 군민 모두가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진도군 운영주 부군수가 대독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코로나19 확산자 급증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통해 ▲연말연시 이동·모임자제 ▲가벼운 감기증상이라도 선제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빠른 백신 3차 추가접종과 외부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감염사례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돌파 감염 등으로 무엇보다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연말 각종 모임과 실내 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겨울철 날씨 요인이 더해져 지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도군은 최근 발생한 관내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과 관련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밀접접촉자에 대해 2일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가 어려운 6명에 대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강창호기자

“소춘 빛을 · (탐)하다” 광산구 산단 프레비엔날레 개최

16일 소춘아트팩토리스 개막, 10일간 융복합 매체 예술 전시

조금 먼저 만나는 산단 비엔날레, 광주 광산구의 2021 산단 프레비엔날레가 16일 개막한다.

“소춘: 빛을 띠(탐)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6일까지 광산구 소춘아트팩토리스 일원에서 진행된다.

프레비엔날레는 2년마다 여는 산단 비엔날레의 내년 개최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코로나19 이후 전환기 예술, 문명이 나아가갈 방향을 가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 기획자인 이현남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김장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레이박 작가, went(웬트)팀(이가현·이윤서 작가) 등 뛰어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전 ‘기술공감:(感)_매체감성’은 김장겸 작가와 went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대화형 예술), 인공지능과 만다라 등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진다.

‘경계선:(線)_가상 그리고 현실’을 주제로 한 기획전은 홀로그램으로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표현한 레이박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지역적인 경계에 대한 답론을 제시한 아시아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로 광주 인공지능 기업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업체

협전과 메타버스 세상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8일 오후 2시 소춘아트팩토리스 큐브미술관에서는 기술·예술 융합의 현재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찰해보고 문화 생태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전시는 전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월요일은 휴관이다.

특히,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 PCR검사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산단 프레비엔날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 소춘아트팩토리스팀으로 하면 된다.

김덕윤기자



해남군, 2021년 농산물 마케팅대상 '대상' 수상 쾌거



해남군이 2021년 농산물 마케팅대상 지자체부문 대상을 수상, 농림식품부장관상과 시상금 5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농산물마케팅 대상은 농식품산업연구원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후원으

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혁신을 주도한 원예농산물 분야의 우수 산지유통조직 및 기업, 지자체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군단위로 처음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 강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해남군은 11개 지역농협과 12개 법인사업단을 투트랙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을 운영하고, 해남군에서는 산지생산자 조직 육성지원, 통합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지원으로 산지유통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구마와 해남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정부공모사업과 연계한 가공, 체험관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소비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군 직영의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00여원을 돌파하여 전국최고의 공공 쇼핑몰로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때보다도 농산물 판매도 힘든 시기였지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유통의 다변화·점진화로 농가 소득창출 및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개막식 열려

신안군은 12월 10일 압해읍 "천사섬분재공원"에서 53일간의 『섬 겨울꽃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개막식은 유튜브 채널(채널명 : 섬 겨울꽃 축제)로도 생중계 되었으며, 주요 내빈과 축제추진위원 등이 함께 축제 개막의 기쁨을 나누었다.

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발열체크,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착용, 취식금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섬 겨울꽃 축제』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 1월 초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에는 12시~15시까지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눈 내리는 애기동백길에서는 인공눈을 내리게 하여 새하얀 눈꽃과 새빨간 애기동백꽃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록 하였으며, 다양한 포토존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소원지 쓰기 및 나에게 보내는 엽서쓰기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 친구와 연인이 함께하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 행사와 더불어 천사섬 분재공원에 위치한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하얀겨울<섬, 겨울꽃 애기동백> 회화전이 내년 3월 20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분재학교 강당에서는 제1기 분재학교 수료생들의 분재전 시회가 12월 19일까지 열리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겨울꽃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하늘과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새하얀 눈 속에 피어난 애기동백꽃을 보는 기쁨을 보태어 가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조기석기자



김제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선정 " 쾌거 "

김제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는다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세제혜택, 공장설립 인·허가, 금융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용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김제시는 전라북도 및 김제시(가 상용차 생산(특장차 전문단지 등) 거점지로서 특장차클러스터구축을 통해 전기특장·기계산업 전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강조하고 부지 기획보 등 지자체의 강한 사업의지 등을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립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내년에 설계비 10억 원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8억을 투입하여 지평선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15,777.3㎡)에 총 6층(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기술창업 및 기업 입주공간인 창업성장센터 ▲시장출시 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구축 공간인 스피드팩토리 ▲일자리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일자리산업진흥센터를 담아 새만금 배후단지로서 백구특장차클러스터의 이점을 살려 특장기계·전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전방위로 구축할 전략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벤처·중소기업과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창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가 창출되어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익산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로 옛 명성 되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상권 르네상스 사업' 최종 선정 쾌거

호남지역의 중심상권인 영등동 일대가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규모의 역안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익산의 중심 영등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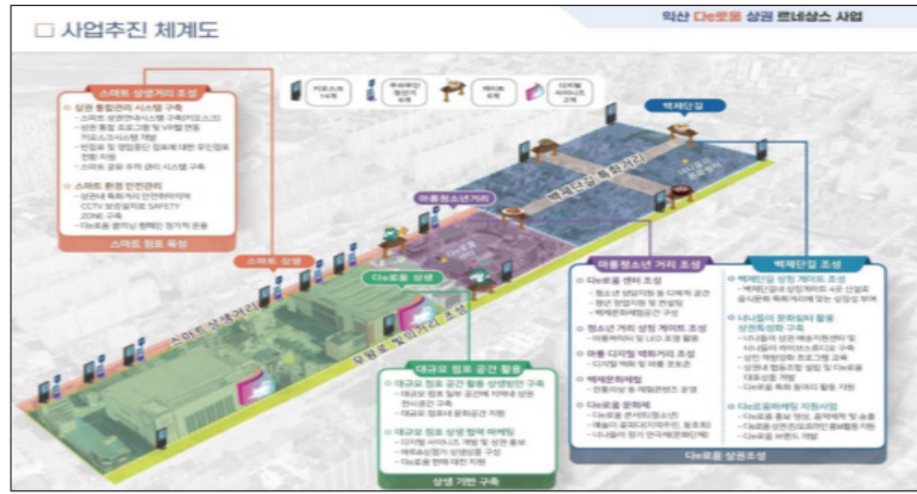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특화된 콘텐츠를 토대로 디지털 상권을 구현하고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익산시의 강한 의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익산시는 영등 2동 815개 점포, 13만8천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 상인과 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하여 코로나19와 비대면 소비 활성화 등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50억원에 포함한 도비 10억, 시비 40억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익산 Da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세부 계획을 고도화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소통·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상권구현이라는 가치로 백제문화와 역사, 영등동 상가와 백제단길 상인들이 함께하는 스마트 상점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영등2동



일원에 스마트상권 안내 시스템 구축, 비대면 쇼핑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상생 거리 조성, ▶ 대규모 점포와 협업을 통한 Dae로움 상생거리 구축, ▶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 등을 통한 백제문화체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거리 거리 조성, ▶ 백제단길의 고도화 사업을 통한 음식문화 특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영등동 지역 상인과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포함된 상권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권 활성화 추진단(단장 강호현)을 발족하여 쇠퇴하고 있는 영등 상가와 백제단길을 대상으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상인회와 협력해 사업 구역 내 815개 점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약 동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철저한 준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직접 사업 초기 계획수립부터 직접 발로 뛰며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정 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중기부 발표평가의 발표자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인회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펼친 끝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선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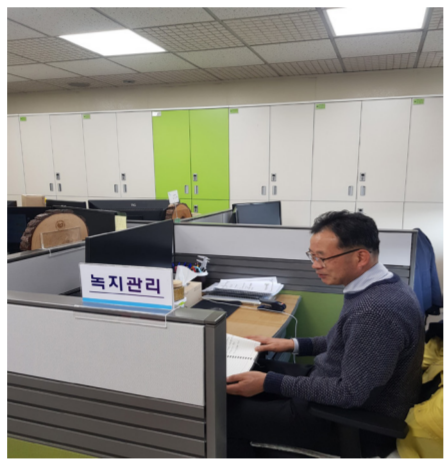
남원시 조경사업 추진을 위한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

남원시는 올해 관광남원 이미지 구축을 위한 각종 녹지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녹지 조성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지를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푸르게 유지·관리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름다운 관광남원 이미지를 조성하고 녹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업무가 녹지관리 업무라 할 수 있다.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2021년 조직 개편을 통해 산림녹지과 녹지관리계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경수, 가로수 등 수목 관리를 위한 조경수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충정로 등 주요 도로변 및 시설지, 마을숲 등에 전자·전정, 고사목 제거 등 수목 관리 작업을 추진했다.

요천로 등 주요도로변 16개소와 사매 상신마을 숲 등 21개소에 소나무 등 708,830주 전자·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마을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남원의 관광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려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교체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원시는 관광남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도심속 향기원, 핑크플리 꽃단지, 요천변 꽃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도심속 향기원은 시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책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김현태/기자

군산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 가시화

1조 1,036억원 국가예산 확보, 18개 부문 수상 및 45개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군산시는 2021년 한해 각종평가에서 18개부문 수상과 4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시민안전'과 '지속가능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민선7기 3주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회복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 중간의 시간을 보내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숨 가쁘게 달려온 군산시의 2021년 한해를 돌아본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행정에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고위험군 선제적 검사, 확진자 발생 집단에 대한 공격적 전수조사로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전시민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고위험군 선제적 검사, 확진자 발생 집단에 대한 공격적 전수조사로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전시민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미래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추진해 온 노력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발전까지 시민참여형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산업단지는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군산형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혁신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



권 발행', '배달의 명수', '동네문화카페'는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고, 지금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도 발행액 전액 판매를 달성했다. 또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중소기업공동구매 물류센터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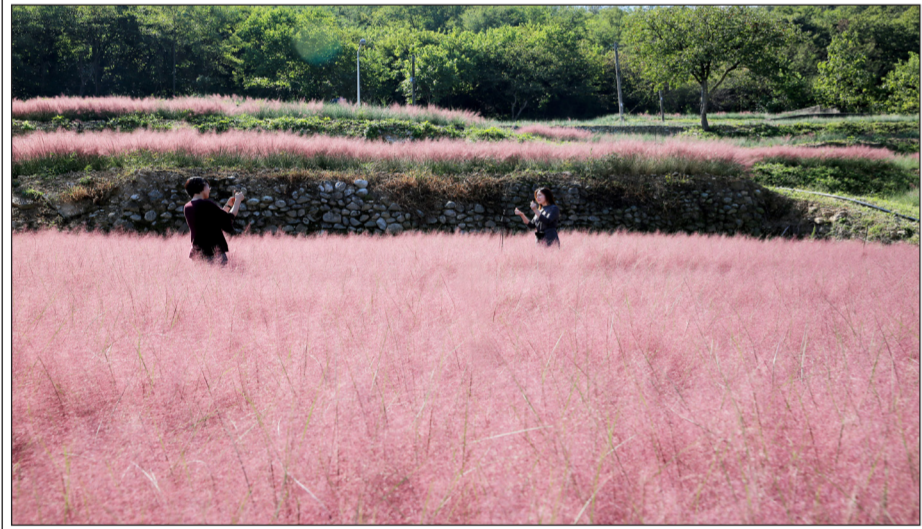
군산시는 새로운 문화관광자원 발굴 육성과 시민이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도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또 지역 공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과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산형 긴급복지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 '노인회관 신축사업',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안전 분야의 시민 체험형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지역 내 공간을 이루는 사업이며 기후위기와 더불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농수산업 육성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로

김승일/기자



을 얻고 있다.

조경수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수목 생육에 맞는 집중 관리, 작업시기 조절이 가능하고, 사업발주 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겨울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가로수 월동대책을 실시하였다. 도로변 연합화살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항로 등 3개 노선을 방풍벽과 월동마대 감기작업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도부터 사업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민원이 많고, 수형조절이 필요한 옹성로 등 3개 노선 은향나무 271주에 대하여 전자·전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요천변 노후 벤치 60개소 정비, 도로변 노후화분 40개를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핑크플리 꽃단지는 2019년 유류부지 15만평 정도를 활용하여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마다 핑크플리를 보식하고 백일홍 등 파종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0년 집중호우로 기초성된 요천변 꽃단지가 유실되어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류 식재, 벽면 꽃단지 보식 등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내년도 봄꽃으로 팬지, 비올라, 스노우랜드 등 9종 210천본을 식재하여 관광남원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여행함서 공부함서'발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북도 성인문해학습자 학습지원을 위해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부교재 '여행함서 공부함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부교재는 도내 14개 시군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여 주교재(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의 학습 목표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기획문, 편지, 일기, 시, 설명문 등의 다양한 형식의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부교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학습꾸러미'를 함께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성인문해교육 현장에 학습을 독려하였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21년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성인문해학습자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선거교육(118명), 문해교육 교원 교육(113명) 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94점) 등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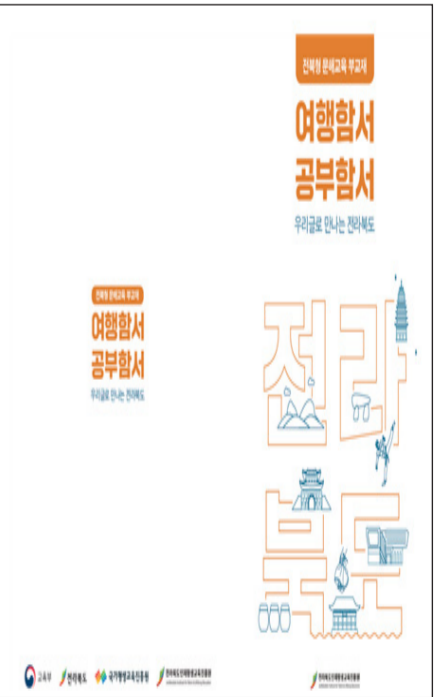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문해교육 학습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모를 통해 12시·군에서 87점의 작품을 제출하여 부상리 겸 교육부장관상 등 49명이 수상하여 성인문해학습자의 학업성취감을 제고하였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은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작품집'이제야 알았네 이 조은 길'로 제작되어 도내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도서관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배부하였다. 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시화전을 추진하였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10월 1일로 전라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전라북도 문해교육 기반을 구축으로 더 다양하고 전라북도 문해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비문해자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A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충남도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충남도가 도민 인권 증진시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등 3개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도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단은 지난 7월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인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시책은 이용자, 종사자, 기관운영에 대해 기본권침해, 이용시간, 개인정보, 규제절차 마련여부, 교육실시 여부, 인권지침 수립 여부,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가단은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위급상황 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며 "위급상황 통역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활동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시책은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통합지도사, 수행기관 분야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참여기간, 인권보호지침 마련, 개별 규제제도 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 구비,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살펴봤다.

평가단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이주민'으로 개선해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담당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업참여자의 개선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등에 대해 개선과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지표 마련으로 객관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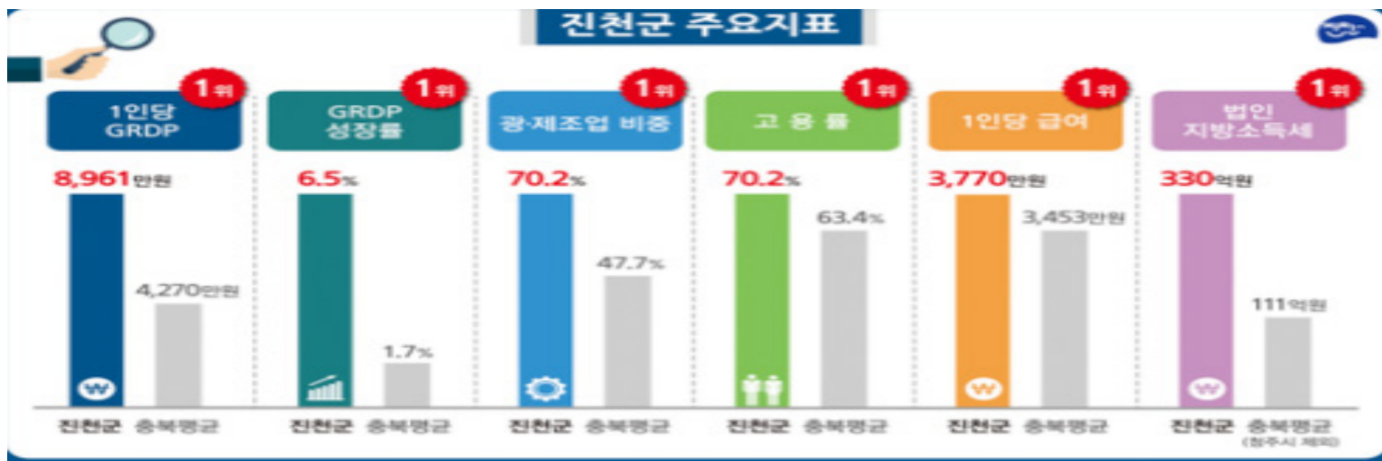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운영, 생활지원사, 이용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변역 시스템 여부, 노동권 보장,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15개 시·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지원체계와 정서적 안정 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진천군, 1인당 GRDP 8,961만원 10년 연속 도내 1위



진천군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탈바꿈한데 이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0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GRDP(지역내총생산)란 지역에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1년 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지역별 경제활성화와 부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지난 9월 공표한 2019년 기준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결과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2018년보다 177만원 감소한 8,961만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도내 2위인 음성군의 7,865만원보다 14%/1,096만원, 도내 평균인 4,270만원보다는 210%/4,691만원, 도내 최하위 자치단체의 2,178만원보다는 411%/6,783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날 만큼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구수에 반비례하는 1인당 GRDP의 특성상 인구 감소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천군은 추계인구가 8.1만명→8.5만명(4.9% 증)으로 도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타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군은 2018년 2.8%로 3위를 기록한 성장률에서도 3.7% 포인트 증가한 6.5%를 기록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질반에 가까운 5개 자치단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도내 평균 성장률이 1.7%인 것을 감안하면 진천군의 성장세 회복이 뚜렷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진천군의 지역내총생산 총 규모는 7조 6,140억원으로 도내 4위를 기록했고 지난 3년간 진천군은 GRDP 도내 2위권 자치단체와의 격차를 9,076억원에서 5,548억원으로 좁혀 도내 2위권을 톡밀까지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인구와 면적은 충북 전체의 5.2%(8.5만명), 5.5%(407.3km²)에 불과한데 비해 GRDP 점유율은 11%를 기록해 군세 대비 경제 규모는 2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천군은 GRDP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광·제조업이 비중이 70.2%로 6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457개소로 청주시, 음성군에 이은 3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량기업이 몰려 있다는 증거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제형 2020 국제통계연보 발표에 따르면, 진천군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3,770만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도내 평균 3,453만원보다 9.2%, 317만원 높았다.

또한, 올해 신고 된 법인지방소득세(9.30일 기준)가 총 330억원으로 청주시에 이어 도내 2위 및 전국 군 단위 2위를 기록했다.

최만식기자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속 '산타와 크리스마스트리' 눈길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인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수조 속에 겨울 손님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등장해 눈길을 끈다.

14일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은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고, 시설물 새 단장도 마쳤다고 밝혔다.

먼저, 아쿠아리움은 오는 18일과 25일 지하 2층 메인 수조에서 산타 옷을 입은 아쿠아리스트를 등장시켜 8m 깊이 물속에서 물고기 먹이 주기 시연과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쿠아리움은 앞서 11일에도 산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철갑상어, 쏘가리, 잉어 등 16종 6000여 마리 물고기기가 있는 650t 규모 메인 수조 속에 산타가 등장하는 환호한 풍경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메인 수조 내에는 3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대형 스틸 리본과 선물상자, 유광볼, 실크볼 등 다채로운 장식들도 함께 조성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1층 출구에서 아쿠아리움 스탬프투어를 완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기념 스티커 증정 행사와 아쿠아리움 홍보 기념품인 '수달 안전벨트 인형'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외에 지하 2층에 조성했던 기존 소원 메시지 존을 루돌프와 함께하

는 포토존으로 탈바꿈해 연인,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도 사로잡을 계획이다.

군 다누리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안전한 관람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다누리아쿠아리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 개장한 다누리아쿠아리움은 150개의 수조에 단양 강을 비롯해 아미존, 메콩강 등 해외 각지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국내 외 양서·파충류 등 234종 2만3000여 마리를 전시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대전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대전시 100년을 위한 밑그림

대전시는 13일 대전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100여년 간 도시를 단절해 왔던 경부(13km)·호남선(11km) 등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방안과 상부공간(유희부지) 활용계획, 역세권(신탄 지역, 대전조차장, 대전역, 서대전역, 가수원역 등)개발 및 연계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다.

이 날 용역 착수보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안정화)이 과업의 목표와 방향 등을 발표하였고, 트램도시공역본부장(전재현) 주재로 공원녹지과, 건설도로과, 트램건설과 등 관련 실·과장 및 관

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과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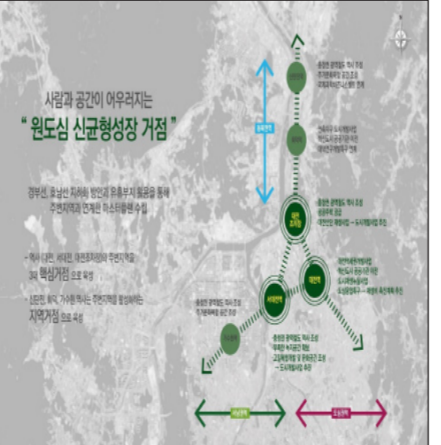
대전시는 2020년 1월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대전 도심 내 철도에 대한 지하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같은 해 지역 정치인과 공조하여 정부로부터 연구용역비(15억원)를 확보하여 올해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공역본부장은 "앞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한 구상과 철도 운행 및 정비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내년 대전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중앙정부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전시는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유희부지) 활용 계획과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미래 100년을 그릴 수 있는 도심 공간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철도유희공간과 기존 도시공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발전상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철원군 2021년도 농농업 생산비 13억 4천만원 지원

철원군은 2021년 농농업 생산비를 금주부터 3,935농가에 13억 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농업 생산비 지원사업은 쌀값 하락과 영농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욕을 높이고 자 철원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철원군 소재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농지(논)로, 기존 논으로 직불제에 등록되었거나 확인된 농지이며, 대상농업인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공익직불

금 지급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3.3㎡당 70원으로(콤바인사용료 일부지원), 농가당 최대 6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철원군은 "영농비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원군은 2017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 쌀값 하락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농농업 생산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세나기자

정선군농업기술센터, 2021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정선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해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021년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농농업 개선과 농업인 소득증대, 살기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는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명품 사과 재배단지의 조성, 지역 농산물의 가공상품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 실천과 과학 영농시설 운영, 농업 재해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농업인 육성 등 체계적인 지도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

되는 결과를 얻었다.

을 만들기 위하여 정선사과 명품화, 10대 주력 품목을 중점 육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실 운영,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미래농업 육성, 농산물 마케팅 사업 활성화와 유통망 다변화, 화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센터', 농업인 수당과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유순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서에서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의 농업인들과 함께 공직자들이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선진 농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속초시, 2022년 속초시명장 선정 접수

속초시는 관내 제조업체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2년 3월 10일까지 3개월여간 2022년 속초시 명장 선정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1개월간 모집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지역 최고의 명장 발굴을 위해 2개월을 연장하여 접수한다. 속초시 명장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발전

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5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속초시 명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2021. 12. 9. 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선정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관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명장 선정은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기여도, 숙련기술인 지역기여도, 포상 및 입상 실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면접, 속초시명장심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5월 중 명장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속초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는 속초시 명장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강원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며, 판로분야 지원 또는 각종 시책사업 지원·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등원기자

강릉시, 간절한 소원이 있나요? 도전! '스트릿 소원파이터'

강릉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떨어진 시기에 SNS 채널을 통해 그동안 참고 견뎌온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침없이 소원을 빌어보는 댓글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이벤트 기간은 17일(금)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강릉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소원을 남겨 주면, 선정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일 공식 SNS를 통해 선정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선정 결과에 따라 당첨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 진다는 말이 있다. 2021년 연말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해소하지 못해 아쉬운 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 등 이번 기회에 빌어보는 건 어떨까? 혹시, 모른다. 정말 이루어 질지?"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지자체장부분 문화관광대상 수상

남원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한 공로 인정받아 수상



이환주 남원시장이 '2021 서울 평화문화대상' 지자체장부분에 선정됐다. 시는 이환주 시장이 서울 평화문화대상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식'에서 지자체장 부분 '문화관광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평화문화대상심의회는 이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등 남원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해, 수상자로 뽑았다.

실제로 이환주 시장은 2011년 취임 후 민선 5, 6, 7기 시정을 이끌면서 관광남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원관광 중단을 계획해 마련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안루원 주변 금동과 죽향동 일원에 총사업비 561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10년동안 야심차게 추진한 '남원예촌 조성 사업'이다.

특히 남원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남원관광지 및 합파우 유원지 내에 모노레일, 쥘리안 시설 등을 조

성해 도심권 관광동선을 확장하고 있어 남원관광의 새로운 관광패턴을 형성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 상은 제 개인적인 수상이라기보다 우리시가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관광 남원 1번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여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 남원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대표 복지시책 우뚝

13일 성과 공유대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해결 행복메신저 역할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그동안 생활 불편 개선 및 위기 가구 발굴 등을 통해 3만 6천219가구에 60억 원을 지원, 명실상부 전라남도 대표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13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온라인 소통(중연결)을 포함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선 김영록 도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22개 기동대원 등이 참여해 한해 성과를 나눴다.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기탁금 전달식, 경진대회 시상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기탁금은 최재현 (썬동신이엔지) 대표, 박우영 목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7개 기관과 박준희 등 개인이 1억 300만 원을 모금했다.

특히 함창환 전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회 한국공공복지대상에서 받은 시상금 200만 원을 기탁해 귀감이 됐다. 우수사례는 2개 분야, 38건을 접수해 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군 분야는 대상 해남군, 최우수상 강진군, 우수상 보성군, 장려상 순천시, 장려상 완도군이 수상했고, 협력기관 참가상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라남도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받았다.

김 도지사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행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복지기동대원이 큰 자부심으로 즐겁게 봉사하도록 더욱 살뜰히 살피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더불어 잘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 4월 출범해 이동장과 전기·가스·주택 설비전문가 등 5~10명 내외로 2천20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주목하는 민간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안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세종시 연서면 지사협, 단체로 소액 정기기부 약속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인·김병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는 전국 최초로 '소다수나눔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했다.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와 14일 서세종농협 봉암지점에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다수나눔캠페인 단체가입식'을 가졌다.

소다수 나눔 캠페인은 소중한 다수를 위한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착한 나눔, 착한일터 등 소액 정기기부 확산으로 건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게 목적이다.

이날 협의체는 착한나눔 정기기부 12명, 착한일터 5기부, 착한일터 2곳이 단체로 가입했으며, 김병민 민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서세종농협 본점과 봉암지점 직원 32명도 착한 일터에 가입했다.

김병민 위원장은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국 최초로 '소중한 다수의 나눔'이란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는 소다수나눔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연서면의 풀뿌리 기부문화가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 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병인 연서면장은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처음으로 소다수 나눔 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게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여주 여주여자중학교, '아세요? 아세안!' 청소년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여주 여주여자중학교는 한·아세안센터에서 주관한 「아세요? 아세안!」 청소년 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및 10개 회원국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그림, 사진, 영상 공모전으로 여주여중은 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의 이웃 아세안"이란 제목으로 10명의 학생들이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특색있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관객들의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참가한 3학년 박지은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아 기쁘고 중학교 생활에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함께 참가한 채용기 지도교사는 "여주여자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상호문화이해학교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넓은 안목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충청남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성금 기부

13일도내 어려운 이웃 위해 1000만원 기탁



충청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로부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박준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장은 이날 도청 외부전실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양승조 지사에게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다양한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성금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는 예산에 소재지를 두고,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2021 좋은이웃 밝은동네 '순천시 주암면주민자치회' 으뜸상 수상



순천시 주암면주민자치회가 '2021 좋은이웃 밝은동네' 으뜸상을 수상했다.

"좋은이웃 밝은동네"는 KBC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후원하여 희망찬 지역 만들기

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으뜸상을 수상한 주암면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주암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요단체 및 상인회 등과의 상생협력 체결,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마을의 역점 자원인 광천 수변공원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하천 정화활동부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까지 추진하며, 마을을 대표하는 자

성흥제 의원, 제10회 도전한국인상 '모범 의회의정대상'수상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인프라확보와 노후 인프라 정비에 모든 역량 집중할 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흥제 위원장(은평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사단법인 도전한국인 본부가 주최한 열린 제10회 도전한국인상 '모범 의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관련 제도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성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해 서울 시민을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성 위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정신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본연의 자리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인프라 확보와 노후 인프라 정비를 위한 노력에 모

든 역량을 집중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도전한국인상 시상식'을 주최한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 행을 해나가는 도전인들을 발굴하고 도전정신 확산을 위해 10번째 운영하고 있는 NGO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약 1천 명의 회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별 수상자 약 2천 명을 응원하고 도전정신을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광수기자

용인시 모현읍, 한 무기명 기부자 3년간 이어온 나눔 실천 화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3년간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읍은 14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27번째 정기 기탁금 3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27차례에 걸쳐 870만 원을 모현읍에 기부했다.

3년 전 식품사업장 운영을 시작한 이 기부자는 초반엔 장사가 잘되지 않아 비 정기적으로 소액의 성금을 복지팀 민원대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이후 점점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자 정기적으로 매달 30만원씩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가정의 먹거리 지원 사업인 '이동푸드'에도 식료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나눔이 이어지자 읍 직원들은 이 기부자의 선행을 알리고 싶다는 바람으로 그에게 신원을 밝혀도 되는지 물었으나 그는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어릴 때 모현읍에 살았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읍사무소 복지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큰 금액도 아니고 어릴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이 손길을 누군가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고 선행의 이유를 밝혔다. 읍 관계자는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이런 기부자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며 "읍에서도 더욱 세심히 어려운 이웃을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C culture 문화

14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제22회 순천만 갈대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세계유산 순천만, 자연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제22회 순천만 갈대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후 열리는 첫 주민 주도 축제(사)순천만생태관광협회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시민사회 단체가 '순천만 갈대축제 학교'를 구성하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전공연은 대대·별량 등 순천만 인근 주민 60여 명과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하여 순천만 용출다리를 재연했다. 순천만 용출다리는 풍년과 주민 화합을 다지는 대대마을 전통 세시 풍속으로 선두에 놓아 길놀이패가 길을 열고 그 뒤를 주민이 함께 용출을 메고 순천만 습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어 암출과 수출의 고리를 걸어 출다리가 시작되었으며, 진편은 상여소리로 주민들을 위로했다.

제2회 대한민국 학춤대회는 약 3,3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온 순천만에서 순천·통도사·울산·양산·동래 5개 지역 공연단이 고풍스러운 춤사위를 선보여 두루미의 보존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갈대 사이로 노을이 질 무렵에는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과 순천대학교 박성훈 교수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노래가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밖에도 대대동 주민의 삶을 전시한 사진전, 순천만 인근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전공연에 참가한 대대동 주민은 "올해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순천만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축제는 준비과정에서 주민·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잊혀져가는 순천만 용출다리의 기원을 이어 전국 출다리기 대회 등 전국 행사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석기자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사도세자의부마·흥은위 정재화' 개최

수원화성박물관은 14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특별기획전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2019년 6월,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 선생의 후손이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한 정재화 선생 관련 유물 1000여 점 중 100여 점이 전시된다.

정재화 선생 후손들은 대대로 비장(秘藏)해오던 정재화 선생 초상화, 흥은위 고신고지(관직 임명 문서), 녹패(녹봉 지급 문서), 고급 호패(신분증) 등 정재화 선생 관련 유물과 그의 아내 정선군주(淸澗郡主, 1756~1802), 그들의 후손과 관련된 유물을 기증했다. 조선 왕실 부마 유물을 대거 기증한 첫 사례였다.

흥은위 정재화(1754~1790)는 명문대가 영일정씨(迎日鄭氏)의 후손으로 선조(재위 1567~1608) 때 좌의정을 지낸 가사(歌辭) 문학의 일인자, 송강 정철의 8세손이다.

1766년(영조 42년)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에 딸린 정선군주와 혼인해 흥은부위(興恩副尉)에 봉해져 정

조대왕의 매제이자 사도세자의 부마(駙馬, 왕실의 사위)가 됐다. 1899년 '흥은위'로 추봉됐다.

정선군주와 사이에서 1남 2녀를 낳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다. 정조는 용모가 준수하고, 처신이 신중했던 정재화를 많이 아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정조의 측근으로 정재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1795년(정조 19)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에는 정재화의 아들인 정의(鄭滄, 1782~1832)가 작고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 정선군주를 모시고 두 여동생과 참석하기도 했다. 정의(鄭滄)는 수원판관을 지내며 정조대왕 초상을 모신 화랑전의 최고 책임자를 맡는 등 부친에 이어 수원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특별기획전에 전시되는 유물 중 '흥은위 정재화 초상'이 단연 돋보인다. 현존하는 유일의 왕실 부마 전신(全身) 초상이다. 필선의 섬세함이나

표현 등이 매우 우수하고,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왕실 소속 최고 기량을 갖춘 화원(畫員)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정재화 초상은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혜경궁홍씨, 정조대왕, 효의왕후(정조 왕비), 정연군주(정선군주 언니)가 흥은위 가문 인물들과 주고받은 한글 편지 총 140여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혜경궁홍씨의 친필 한글 편지는 관계 기관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외손에 대한 혜경궁홍씨의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다. 이밖에 부마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왕실이 하사한 각종 고문서·고문헌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유물과 서화(書畵)류도 볼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조선 왕실 부마의 전신 초상화와 왕실 하사 유물을 함께 선보이는 국내 최초의 전시"라며 "진귀한 유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창원박물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완료, 이례적 수치로 시민 열망 드러나

창원시는 1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714억원(국비 40% 포함)을 투입해 30만평 부지 159·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 4,748㎡)의 종합박물관을 건립하는 특례시 대표 문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앞서 타당성 조사 대상 신규사업에 해당되어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창원시의 사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외부 연구진 조사와 현장실사,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약 7개월간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제성, ▲운영수지,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달 조사를 완료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창원시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은 경제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대상자 1,000명)에서 평균 지불의향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이 9,335원이라는 높은 수치를 도출했다.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수지 부분에서도 충분한 전시콘텐츠 확보 및 수익시설 운영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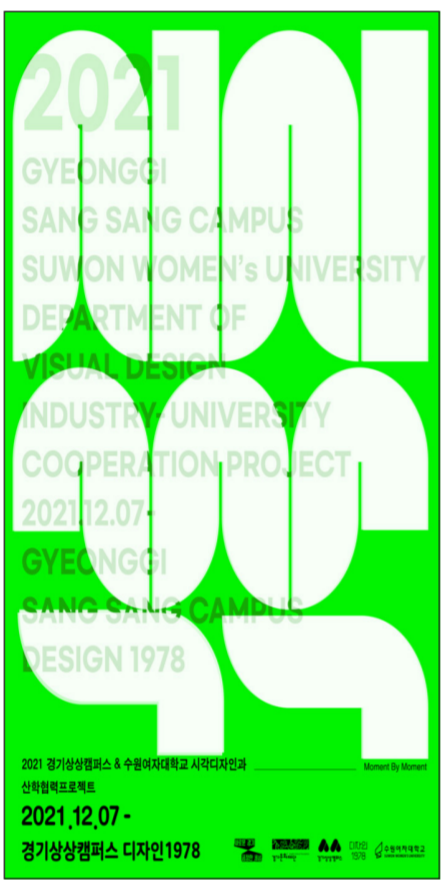
시는 12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해당 절차까지 통과하게 되면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박물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불의향금액(WTP)은 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세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국립박물관 평균 지불의향금액이 500원에 비해 1,000원 정도인 점과 비교할 때 9,335원이라는 수치는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 당초 예상했던 목표 수치 이상을 달성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한 번에 통과되도록 준비해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2021 경기상상캠퍼스X수원여대 시각디자인과 산학협력 결과보고전 '시시각각' 오픈



경기도 문화·사회·환경·예술공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 전시

- ▶ 경기상상캠퍼스X수원여대 시각디자인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보고전시
- ▶ 12월 7일부터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에서 관람 가능
-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현)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여대 시각디자인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전시 '시시각각'이 내년 2월까지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에서 진행된다.
- ▶ 2021 시시각각(時時時刻刻) 전시는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2020년 1회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본 프로젝트는 경기도 문화·사회·환경·예술·공간 등을 리서치하고,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물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재해석하여 경기도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시 제목 '시시각각(時時時刻刻)'은 디자이너의 다양한 시각, 시선을 의미한다. 이번 '시시각각'에는 경기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녹아든 프로젝트들이 전시된다. 경기 방언의 소멸 위기를 문제점 삼아 경기 방언의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경기도 사투리 보존, 경기 소재>부터 매항리 마을과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 매항리 브랜드 깃지를 제작한 <흔들리는 매항리, 고온매항>, 역사와 생애가 함께 생동하는 DMZ 비무장지대를 다룬 <38나래, 비행과 궤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다시 정

조혜영기자

경남문화예술회관, '정미조 X 말로 X 박주원 'the 3 live'' 개최

가요의 전설과 한국 재즈의 빛나는 현재를 만난다! 가요계의 전설 정미조와 최고의 재즈 보컬 말로, 신들린 핑거링의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한 자리에 모여, 팝과 재즈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12월 16일 저녁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정미조 X 말로 X 박주원 'the 3 live''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경남문화예술회관과 jnh뮤직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가요사에 불멸의 곡으로 남은 '개여울'의 주인공 정미조는 지난 2016년 은퇴한지, 37년 만에 극적으로 가요계로 복귀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 말로와 박주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왔다.

와 노래, 그리고 음악적 물음을 지켜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미조 X 말로 X 박주원 'the 3 live''에서는 Δjohnny guitar Δ florzinha Δ피리 부는 사나이 Δ돼불러 Δarmando's rumba Δsunny Δ개여울 Δ취파람을 부세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윤광남/대기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2월 21~23일 청년 예술인 어울림 문화 공연

13일 오전 9시부터 문예진흥원 예매시스템서 50석 선착순 예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21~23일 3일 동안 오후 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청년예술인 어울림 문화 공연을 펼친다.

제주도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간 협업으로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정령 PASSION 제 -들을聽 푸를 靑, passion 열정, 청년 예술인의 열정에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극·무용·대중음악·클래식 등 여러 분야에서 12개 팀이 참여한다.

연극에는 「극단 RED」가 참여해 1900년대 초 러시아 지배의 북유럽 리투아니아를 배경으로 한 '리투아니아'를 무대에 올린다.

무용에서는 「팀오르다」가 출연해 '제주아리랑', '꽃춤', '입춤', '부채춤' 등의 한국무용의 선과 전통의 호흡을 선보인다.

대중음악으로는 '홍조밴드', '홍어밴드', '하비오', '주넨드', '도아', '밴드 스물시터'가 출연해 'Dream', '그대와 함께', '유람선', '오

랜만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제주 청년의 감성으로 노래한다.

클래식에서는 제주어로 '보통 것과는 다른 갖가지'를 뜻하는 '벨아벨', 제주 유일의 클래식 타악 듀오인 「소호마타악듀오」, 유니크한 컨셉을 뜻하는 「제니크 퀸텟」, 불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푸알 앙상블」이 출연해 'Liber tango', 'My heart will go on', 'The Last Dance', 'Canon(재즈 버전)'을 공연할 예정이다.

총 50석을 마련했으며, 공연은 무료다.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문예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제주지역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파주시, '대성동 : DMZ의 숨겨진 마을' 발간 기념 북토크

파주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소동출판사에서 제작한 '대성동 : DMZ의 숨겨진 마을' 발간 기념 북토크가 17일 오후 2시에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파주를 상징하는 주제별 기록화 사업의 첫 번째 주제인 'DMZ 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성동마을 책자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 대성동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중앙도서관은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과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성동마을 책자를 제작하기로 하고 작가와 출판사를 섭외했다.

'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이 지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아가며 마을을 수차례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1년여만에 완성했다. 관할 부대의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이용 제한에 따라 지난 9월 비매품으로 우선 발간됐고 김동구 이장의 도움으로 서점에 배포가 가능한 책자로 다시 제작됐다.

한영기기자



부산시,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 발전전략 포럼' 개최

15dkf,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유튜브 생중계 진행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아스티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 패러다임 제안: 발전전략, 도시재생, 혁신사례 탐구'를 주제로 ▲기조 세션 ▲발표세션 ▲토론세션으로 나뉘어 발전전략, 해외진출 전략, 권역별 혁신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황영우),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 한국해양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경갑수)이 공동 주관한다.

먼저, 기조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의 기조강연과 한국해양대학교 오광석 교수의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기자재공업협동조합 황선우 실장의 '수리조선산업의 러시아 진출전략'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발표세션에서는 권역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수리조선산업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테크노파크 이재원 센터장, 목포해양대학교 남택근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임정필 센터장이 부산권역의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사업'과 전남권역의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경남권역의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세션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조효재 교수를 좌장으로 일선조선이순원 전무, 중소조선연구원 백영수 수석연구원과 연사들이 앞서 발표한 주제 전반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포럼이 생중계되며,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 발전전략 포럼'을 검색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단계적 일일회복 시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세계 조선·해양시장의 패러다임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수리조선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핵심리더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혁신과 변화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수리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궁영기자



대전시, 창업생태계조성 성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지역 혁신창업의 동향 분석과 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지난달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창업지원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세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16개 창업지원사업에 총 100억 원(시비 71억 원)이 403개 기업에 투입되었다.

지원받은 기업은 총 고용 창출인원 1,016명, 총 매출 창출액 1,734억, 수출액 54억, 투자유치 금액 1,084억, 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적재산권 537개 등의 성과를 냈으며,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전지역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창업기업 수는 2016년 31,063개에서 2020년 39,330개로 최근 5년간 26.6% 증가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시 민선7기(2018) 이후 창업기업 증감률은 21.2%로 전국 11.5%보다 월등히 높고,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 17개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대전시 인구 천명 당 창업기업 수는 2016년 대비 30.9% 증가하여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2016년 4,711개에서 2020년 5,336개로 최근 5년간 13.3% 증가하였고, 인구 천명 당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 수는 2016년 대비 17.1% 증가하여 비수도권에서 광주 다음인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8%로 전국평균(63.7%)을 상회하였으나,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아져 5년 생존율은 29.7%로 전국평균(3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에서는 매년도 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위원회 및 지표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성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우리시의 창업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창업기업이 보다 만족할 만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창업지원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창업지원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고도화 된 주소체계 혁신으로 현실과 디지털세상 연계한다

12.14.부터 12.15.까지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대토론회' 개최

사람과 단말기 사이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를 통한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공지능 속에서는 좌표나 경위도로 위치를 판단하지만, 사람과의 위치 소통에서는 주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과 특강,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모형 개발 소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첫날인 12월 14일에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가 열린다.

리더와 만남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소산업계 대표 기관장, 주소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공청회에서는 생활·공공정보속 주소정보 연계기술과 주소기반 모빌리티 서비스(MaaS) 기술 등을 발표하고, 고도화된 주소정보의 가치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 및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해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주소 관련 혁신사업 및 정책 등을 소개하고, 영상으로 참여한 주소업무 관련 공무원, 일반인 등 400여 명과 함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둘째 날은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모형 개발 소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먼저, 사람과 단말기 간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시범사업 중인 '혁신성장산업 모형 개발의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도로 위의 건물, 지하도시 등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었던 '주소산업 대국민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의 아이디어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지난 11월 1차 심사를 통해 31건의 아이디어 중 5건이 선정되었으며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이번에 제출된 대국민 아이디어는 '주차 사각지대 해소 위한 배달 안전 존 사물주소 도입', '도로명주소 기반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금융 자동입출금기(ATM) 사물주소 연계 및 활용' 등 생활과 주소, 그리고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된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가 참여하는 대면회의와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누구나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소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이동수단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의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주소가 생활편의, 국민안전 등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신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 취·창업 온라인 토크콘서트 '청년, 경남에서 희망을 찾다' 개최

경상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1 취·창업 온라인 토크콘서트 '청년, 경남에서 희망을 찾다'로 도내 청년들을 찾아간다.

15일부터 3일 간 저녁 19시부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원시 소재)에서 약 90분 간 진행되며, 경남도 공식유튜브 채널인 '경남피셜'과 '청년특별도 후레쉬맨'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 창업자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경남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토크콘서트는 ▲ 주제별 유명 창업인 특강 ▲ 경남에서 취·창업 희망찾기 대담 ▲ 온·오프라인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질문도 가능하다.

첫째 날인 15일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으로 유명한 오세득 세라데이브런치 대표의 '세프가 만드는 희망 레시피' 특강과 도내 스타트업 CEO인 웹피쉬 정여울 대표, 알테이블 주상현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쇼

가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넷플릭스 제작 '지옥'의 원작자인 경남 창원출신 최규석 작가의 '만화작가가 그려 가는 희망이야기' 특강과 수도권 유망기업인 피플앤스토리 배부순 이사와의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경남 통영 출신의 기업가이자 유명 개그맨인 허경환 허담 대표가 '불안을 희망으로 바뀌나간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어 남해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원벽한인생 브루어리 정학재 대표와 팜프라 유티윌 대표가 지역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이번 온라인토크쇼를 통해 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도내 기업가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취·창업에 준비 중이거나 경험부족으로 고민하는 신규 창업 청년들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광남기자



제주도 농산물 상품 브랜딩·홍보마케팅 비법 전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기법 등 소비자 응대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상품홍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제품에 대한 종합 컨설팅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2일은 선택교육으로 필수교육 대

상자 중 동영상 촬영·편집 여건을 갖춘 교육생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스튜디오 컬러바 조영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온라인 홍보 마케팅(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법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동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대숙 농촌지원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역량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예비 창업자들도 적극 참여해 홍보역량을 키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충청북도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을 개최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증(20곳)과 우수기관(3곳), 유공자(9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인증식 행사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기업대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 일자리수행사업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인증, 우수시군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개 기업은 도내 1년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노인고용비율이 5%이상인 우수기업 중 △노인일자리 창출(고용인원, 고용비율) △노인일자리 환경(급여

수준, 복리후생 제공, 교육훈련 실적) △노인근로안정성(고용지속기간, 고령형태)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0.5%), 지방세 세부조사유예(2년), 해외시장 판촉 지원 등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 성과평가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진천군, 우수 기관으로 음성군과 청주시가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고, 그 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

는 어르신들을 채용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꾸준히 고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우수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지난해까지 1만6천여 건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야말로 고령화 시대에 최고의 복지"라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어르신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을 고용한 기업이 대우받는 전국대표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나훈아, '어게인(AGAIN)테스형' 콘서트를 열고 있다.



리와 별도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건물 출입구에 자체적으로 체온 측정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과 협의해 안전한 공연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훈아 역시 공연 내내 구호, 합성, 합창 같은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 정도만 반응을 해달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콘서트를 본 관객이 소셜 미디어 등에 남긴 글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공연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돈 떨어졌다' 등 좋지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콘서트 관계자들이 (생계가 어려워) 힘들어한다. 제가 이걸 조심히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서 잘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시 콘서트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시국에 가장 차질을 받아온 업종이다. 사람이 더 몰리는 백화점, 테마파크 등이 영업을 하는 가운데 공연을 계속 미루거나 취소해왔다. 이에 따라 음향, 조명 스태프 등 공연이 생계인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업계를 상당수 떠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나훈아의 콘서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서울에서 콘서트가 대거 열리는 다음 주말이 분수령이다.

나훈아는 부산에 이어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아이돌 그룹들도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

콘서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 콘서트는 인원 제한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 역시 크다.

하지만 팬들을 대면한 지 오래됐고, 침체된 콘서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여는 기획사들이 많다. 안전하게 치러지면 계속 공연장 문이 열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더구나 실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선 각종 공연장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국내 콘서트업계에만 돌리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를 성료했고 다른 K팝 그룹들도 연이어 현지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비상조치를 발동할 경우 콘서트 계획이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공연을 앞두고 있는 콘서트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우리도 무섭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더 타격을 받는 건 우리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방역과 안전에 신경을 수밖에 없다"면서 "콘서트는 가수나 기획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등 여러 스태프의 생계도 걸린 일이라 무조건 취소하는 건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김효진/기자

조수미·이 무지치, 앨범 'LUX3570' 발매

데뷔35주년·창단70주년 기념,
조수미 "많은 분들 위로 받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로크 음악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 무지치(I Musici)가 각각 데뷔 35주년과 창단 70년을 기념하는 앨범 'LUX3570'을 10일 발표했다.

앨범에서 조수미는 영화 '기생충'에 삽입된 헨델의 오페라 '통고바르디의 여왕, 로벨린다의 아리아' "내 사랑하는 이여, 헨델의 또 다른 오페라 '이집트의 줄리오 세자레' 중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만일 당신이 나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비발디 오페라 '주스티노' 중 아나스타시오의 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남 만나리"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실내악단 이 무지치는 풍부하고 색채감 있는 사운드를 통해 유니코

발렐를 반 바세나르, 찰스 에이비슨, 스카라라티, 알비노니, 페르골레시의 교향곡, 협주곡, 칸타타 등 음반으로 만나보기 어려웠던 바로크 음악들을 전했다.

조수미는 "저의 국제무대 데뷔 35주년, 그리고 이 무지치의 창단 70주년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여러 차례 녹음 일정이 변경되는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역사가 담긴 이 앨범이 빛을 보게 됐다"며 "Lux(빛!) 캄캄한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곧 희망이듯, 이 앨범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무지치는 "7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과 음악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놀면 뭐하니?+', 도토리 킨 아이비 등판!

'놀면 뭐하니?+'에 치명적인 도토리 킨 아이비가 등판, '유혹의 소나타'의 탄생 비화를 공개했다고 해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아이비 섭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정준하와 하하의 충격 비주얼이 시선을 강탈한다.

11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김윤집 김진용 왕종석 작가 최혜정)에서는 유재석, 정준하, 하하가 '도토리 페스티벌'을 위해 도토리 킨 아이비 섭외에 나선 모습이 공개된다.

유재석은 '도토리 페스티벌'에서 빠질 수 없는 댄스 무대를 채워줄 주인공으로 아이비를 소환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비의 치명적인 카리스마를 그대로 재현한 하하와 정준하의 충격적인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이비는 등장과 함께 하하와 정준하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뺨터트리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아이비는 2005년 데뷔 앨범에서 '오늘밤 일', 'A-ha', '바본가봐'까지 큰 사랑을 받았고, 2007년 발표한 2집 앨범에서 '유혹의 소나타', '이럴 거면'으로 음악 프로그램 1위에 올라 솔로 여자 가수로서 정상을 찍었다. 가요계 킨에서 현재는 뮤지컬 킨으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혹의 소나타'는 치명적이고 강렬한 무대로 당시 수많은 패러디가 등장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한 공개 1달 만에 미니홈피 BGM 차트 1위를 기록한, '도토리 페스티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곡이다. '유혹의 소나타'는 '갯근대' 박근태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녹음 당시 "우주에서 가장 재수 없게 불러라"라고 디렉팅을 했다고. 아이비는 '유혹의 소나타'가 자신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노래였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이비의 명곡 퍼레이드 현상이 담겨 기대를 모은다. 강렬한 댄스부터 가슴 절절한 발라드까지 명불허전 가창력과 감성을 전해줄 아이비가 과연 '도토리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토리 킨' 아이비와 유재석, 정준하, 하하의 만남 현장은 오는 11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배우 조정석, 2021 MAMA '베스트 OST상' 수상

조정석,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좋아좋아'로 '베스트
OST상' 수상



배우 조정석이 2021 MAMA에서 'BEST OST상'을 수상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조정석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 엠넷 아시아인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 이하 2021 MAMA)'에서 BEST OST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의 OST '아로하'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OST상 5관왕을 기록한 조정석이 올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OST '좋아좋아'로 또 한 번 OST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2년간 이어진 특별한 성과를 이뤄냈다.

글로벌 음악 시상식 'MAMA'는 전 세계 음악팬들이 즐기는 대형 음악 축제로, 올해에는 K-POP이라는 언어를 통해 국가, 인종, 세대의 벽을 넘어 편견 없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음악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MAKE SOME NOISE'를 콘셉트로 진행, 어제(11일)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조정석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간담체과 교수 '이익준'으로 분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세밀한 연기과 감성으로 매 회 감동

과 웃음, 설렘을 선사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즌1에 이어 밴드 보컬로 활약하며 '좋아좋아' 외에도 '내 눈물 모아', '별써 일년' 등 다수의 곡을 발표해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듯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호연뿐 아니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히트곡을 탄생시키는 다방면의 매력을 입증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보컬로 조정석의 존재감을 다시금 입증하였다.

이에 OST상을 수상한 조정석은 "감개무량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이상은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시

청자분들 덕분에 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또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슬기로운 배우들, 감독님, 작가님, 스태프, 드라마를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과 하루빨리 오프라인으로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정석은 영화 '행복의 나라' 촬영에 한창이다.

최재은/기자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리믹스도 넘겼다... 4번째 11억뷰 뮤비

그룹 '방탄소년단'(BTS) '마이크 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11억뷰를 달성했다.

11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11월에 공개한 '마이크 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이날 오전 0시51분 경 11억 건을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4억뷰를 돌파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13억뷰의 'DNA'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통산 4번째 1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마이크 드롭' 리믹스는 지난 2017년 9월 발매된 '러브 유어셀프 승 하'의 수록곡 '마이크 드롭'을 일본계 미국 DJ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가 리믹스한 버전이다.

공개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8위로 진입한 뒤 10주 연속 차트에 머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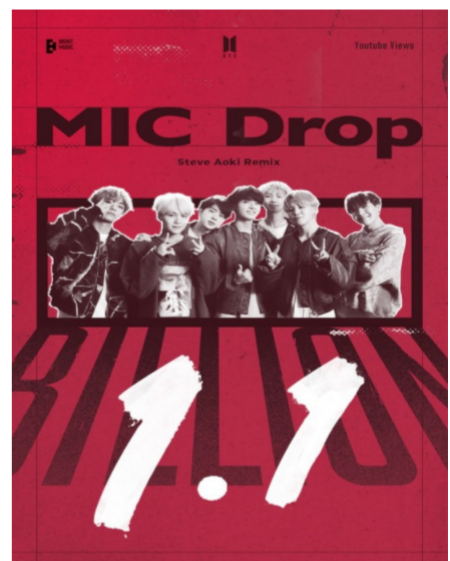
스티브 아오키가 함께 출연한 '마이크 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는 독특하고 강렬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감

각적인 효과와 세련된 영상미로 담아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멤버 슈가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마이크 드롭' 리믹스를 포함해 총 35편의 억 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김효진/기자



드라마 '지리산' OST 마지막 주자...헨리, '하모니 오브 리브스'

가수 겸 바이올리니스트 헨리가 tvN 드라마 '지리산' OST의 열 두 번째 주자로 발탁됐다.

12일 OST 제작사 에이스토리·모스트콘텐츠에 따르면, '지리산'의 대중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열 두번째 OST인 헨리의 '하모니 오브 리브스'(Harmony of Leaves)가 이날 발매됐다.

'하모니 오브 리브스'는 만물이 조화롭게 생동하는 '지리산'의 신비로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곡이다. 바이올린, 첼로와 어우러진 피아노 삼중주 왈츠다.

잔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우아한 몸짓을 형상화한듯 부드럽게 연주되는 헨리의 바이올린 선율이 돋보인다. 피아노의 경쾌한 리듬이 함께 어우러졌다. 특히, 이번 연주는 헨리와 '같이 헨리'에서 인연을 맺은 14살 첼리스트 박진우가 참여했다.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헨리는 작년 11월 세 번째 미니앨범 '저니(JOURNEY)'를 발표했다. '비긴 어게인 코리아', '나 혼자 산다' 등의 예능을 비롯해 유튜브, 틱톡 등 여러 플랫폼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다.

최만식/기자



발라드 앨범으로 돌아온 '더스틴' 승한, '우리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 발매

'더스틴' 메인보컬로 활동했던 '승한'이 드라마 OST에 이어 신보 '우리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로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12월 13일 오후 6시 음원이 공개되는 '우리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는 메인 보컬 '승한'의 기량을 한껏 가미된 탄탄한 음색으로 겨울에 어울리는 발라드곡이다.

JB195, 권진아 등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피아노 세션을 맡았던 '클로이'의 작업으로 탄생한 '우리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는 서정적인 발라드곡으로 리얼 피아노 선율이 매력적인 보이스와 잘 조화를 이룬다.

싱어송라이트의 기질이 다분한 '승한'이 작사에 참여하며 더욱 애착심이 가미된 신보 '우리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는 10일 뮤직비디오 티저 상을 시작으로 13일 음원 오픈과 17일 뮤직비디오 오리지널 버전이 오픈될 예정이다.

소속사 LP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향후 대면 비대면으로 팬미팅 및 토크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음악방송과 라이브의 무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현유주/기자

